

## “나는 선교사입니다” 800여 청년들 헌신 결단

GKYM 선교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7일부터 30일까지 로체스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2,600여명 청년들이 참석했다. 한인 2세들의 선교 동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는 GKYM선교대회는 올해 약

29일 저녁 결단시간을 인도한 김혜택 목사(뉴욕총신장로교회)는 “주님은 아무나 불들어 쓰지 않는다. 주님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을 쓰신다. 또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말하며 “우리의 시간, 물질, 은사 모든 것 다 내 것이라

리에 안수했다. 기도 후원 선교사, 물질 후원 선교사로 작정한 이들도 앞으로 나가 안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결단과 기도 시간이 끝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러나 선교사님이 (전도된)그를 위해서라도 긴 60년의 선교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만큼 간절하고 크다고 전하며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었다.

안찬호 선교사(케냐 감리교 일무쿠타니 마사이 지방회 선교목사) 역시 강의를 통해 선교를 도전하며 “우린 때로 너무 오랫동안 워밍업을 한다. 달리기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너무 오래하면 달리기도 전에 지치는 것처럼 선교를 위한 준비에 너무 오랜 시간을 소요하면 지친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선교를 결단했다면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라.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권나라 기자〉

## 릭 워렌 목사, 재정 호소 3일 만에 240만 불 모여

전 세계 소외 계층 위한 ‘온정’ 경제 위기도 뛰어 넘어

미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인 새들백(Saddleback) 교회 리크 워렌 목사가 교회 적자를 호소한 지 사흘 만에 240만 달러(약 28억 원)를 모아 화제다. 워렌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새들백 교회 홈페이지에 ‘기부금 90만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워렌 목사는 이 호소문에서 “경기침체 탓에 우리 교인의 10%가 실직한 상태에서 교인들과 공동체를 돌보아야 할 우리의 경비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교회 수입은 정체된 상태”라며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소외계층 20만 명을 돕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워렌 목



새들백교회 리크 워렌 목사가 재정부족 호소를 한 3일 만에 240만불을 모아 화제다.

사가 글을 올리자 기부금 상자가 금세 가득 차서, 30분 간격으로 상자를 비워야 될 정도였다. 올해 30 주년을 맞는 이 교회는 미국에서 6번째로 큰 대형교회이다.

## GKYM 선교대회 폐막, 4일간 대회 성황리 끝나

800여명이 선교사로 결단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대회의 표어는 “나는 선교사입니다”로 청년들에게 선교열정을 불어넣고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대회에는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등 먼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들의 뜨거운 강연이 이어져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켰고, 워너블 리더 선예, 가수 선, PGA 최경주 프로, 개그맨 김영철 씨 등 유명인들의 간증으로 문화선교사 및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들의 롤모델을 제

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선교 헌신서를 전달했다. 3일 간의 많은 주제 강의와 소그룹 시간을 통해 선교의 불씨를 지피던 청년들은 선교의 부름에 단기 선교, 장기선교 및 선교 가기 원하는 나라를 표시한 후 앞으로 나갔다. 기도 후원 선교사, 물질 후원 선교사로 작정한 기도 했다.

선교사로 헌신한 800여 명의 청년들은 일제히 강대상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목회자들은 그들의 머

역 명이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 폴 에일먼 목사(CCC 부총제)는 “세계를 변화시켰던 이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고 20대였다”며 “여러분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태어나 한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종족에게 나가자”고 복돋웠다.

또 한 사례를 소개하며 “60년 간 이란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 그분은 60년 동안 딱 1분을 전도했다. 그

## 美 복음주의 최대 현안: 낙태, 상대주의, 학대

### NAE 지도자들 “절대 진리에 대한 불신앙 미국 곳곳에 침투”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덕적 이슈들은 낙태,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인간 학대였다.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가 최근 소속 회원들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이들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보였다. 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된 것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안과 맞물려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낙태 문제였다. 아이오와 주 디모인에 위치한 오픈 바이

블 처치스 대표 제프 파머 목사는 “낙태는 단순히 살인이 다른 범죄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다는 자기 만족과 욕심, 정치적 이득을 중시하는 등 고의성을 띠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성탄절 미 상원은 낙태 시술의 연방기금 보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건보개혁안을 통과시킨 터라, 복음주의 교회의 더 적극적인 저지 노력과 반대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 자유 담당자 WEA(세계복음연맹) 북미 이사인 조엘 C. 헌터 목사(노스랜드 처치)를 비롯해 복음주의교회연맹(ECA) 회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의 세금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데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낙태에 이어서 지도자들

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인 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NAE 디렉터 론 캔터 목사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많은 지도자들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꼽으며 사사기 17장 6절(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을 인용했다. 인간 학대 역시 미국의 가장 큰 도덕적 위기로 규정됐다. “오늘날 미국인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비도덕은 이 사회와 또한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한 우리의 눈멀고 침묵”이라고 국제 구호 단체 월드 릴리프의 새미 마 회장은 밝혔다. 그는 “빈곤, 기근, 인신매매, 무주택자 증가, 그리고 많은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불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현경 기자)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가장 큰 도덕적 위기로 낙태 문제를 꼽았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친낙태 입법 추진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사진은 미국에서 열린 한 프로-라이프(pro-life) 시위의 모습. ©Wikipedia

미주한인 전문이사 정보사이트 Click 하세요~

**2424USA.com**

자동차 운반 해야 하는데... **이사고민 해결!!** 한차원 높은 이사 문화 이제는 인터넷에서...  
어떤 이삿짐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장거리 이사를 해야 하는데...**

**2424USA.com** | Tel: 310-808-9350 / Fax: 310-808-9353  
15934 Figueroa St. Gardena, CA 90247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용자) 용자조정, 용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대표전화 **213.380.2828**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해야 양적 부흥도 따라온다

## [이민교회 문답] 여섯 번째 풍성한교회 박효우 목사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소 무거운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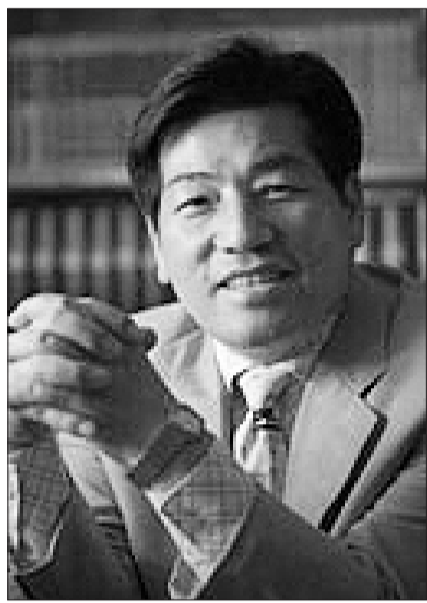
여섯 번째 만남은 풍성한교회 박효우 목사다. 박 목사는 교회 제반 문제를 서로 돕고 봉사하며 교육, 전도, 선교 등 연합 사업을 실행하고 미국 개척교회와 한인교회 간 교량 역할을 하는 미국개척교단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다년간 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섬겼고 현재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으로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 박 목사는 개혁신학대, 미주대신대학교, 유니온 대학, 산호세 크리스천 칼리지 등을 졸업, 라이프신학대에서 Th.D 과정을 수료했다.

어야 마땅합니다.

연합사업에 동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대일로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회나 교협 등에서 교회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연합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사업을 위해서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작은 교회를 위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목사회나 교협 등의 단체에는 작은 교회 목회자의 참여가 많기에 영성훈련을 통한



풍성한교회 박효우 목사

남가주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등 역사를 가진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회자들의 연합이 절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피 남가주에는 가장 많은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교회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은 개교회주의 때문인데 겸손한 마음과 연합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겸손과 연합의 마음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의 성장은 작은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이들이 이동하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빛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연합사업에 참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목사회나 남가주교협의 일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회장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목회자도 계시는데, 교회의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일단 3년 이상 목사회에서 섬긴 분들에게 회장 후보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합 사업을 위한 단체에서 3년 이상 섬기지 않고 수석부회장이나 회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회장이 감투도 아니고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회장이 되

작은교회살리기운동이 필요한데, 계획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위해 가능한 많은 목회자를 택해 전도도 함께하고 세미나 등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한차례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설교도 한 차례씩 전하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회 주보를 들고 나가 함께 전도하는 것인데, 처음엔 아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체계화되면 교단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풍성한교회도 2세 사역에 대해 고민하는 교회 중 하나인데 이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세를 위한 대안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신앙 교육도 해야 합니다. 현재 미주 곳곳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

미국이 도덕적 타락, 경기 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워 신앙교육을 통해 건강한 주의 일꾼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주의 일꾼 양성 못지않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결혼의 중요성을 설교를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은 결혼했다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고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부흥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이 부흥해야 교인이 늘어나는 양적인 부흥이 따라옵니다. 부흥을 위해 사역하다 탈진해서 목회 현장에서 사라지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심령 부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부흥인데 기도를 통해 부흥된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저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개척교단(RCA)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개척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미국개척교단은 화란 개척주의 목회자들이 만든 교단으로 38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에는 미국 최초의 신학교인 뉴브른스윅 신학교가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도 여기 신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교단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목회자만 양성한다는 교단의 정책 때문입니다. 포용성이 부족한 탓인데, 매년 총회 때 신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위한 교단의 노력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근 기자>

# LA 동국대는 한의학을 통한 사랑의 실천 학교

## [인터뷰]

### LA 동국대학교 김인식 총장



LA 동국대학교 김인식 총장

불교재단에서 설립됐지만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뜻 아래 LA 동국대는 기독교 선교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 한의학을 배우려는 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는 김인식 총장과 그의 인터뷰 전문.

-LA 동국대학교 소개를 해 달라 LA 동국대학교는 1979년 설립된 이래 올해로 31주년을 맞았다. 1979년 세신한의과 대학으로 창립된 후 12년 전 동국대학교가 인수했다. 당시 이름이 동국 로얄 한의과대학교였는데 LA 동국대학교로 지난해 변경된 것이다. 석사과정의 한의과 전문 대학원대학교이며, 올해 4월부터는 박사과정이 실시된다. 그래서 석사, 박사과정이 진행되는 전문 석사, 박사 대학원대학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국대 서울과 경주 캠퍼스 LA 캠퍼스가 삼원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LA 동국대학교는 한국 한의과대학교와 교환교수, 인턴 교류, 도서 지원 등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라이브러리(E-Library)를 통해 서울 한의과대학교와 자료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다민족이 거주하므로, LA 동국대에서도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 수업이 진행되며, 영어가 더 편한 교포2세, 3세대도 전면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보통 3년에서 5년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의사 자격시험(NC-CAOM, The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타 한의과 대학에 비해 LA 동국대가 교육 인턴 실습을 중심으로 한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LA 동국대 한의과 대학이 선교를 위해 한의학을 배우는 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동국대가 불교 재단이지만, LA 동국대 직원 50% 이상이 크리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뜻 아래, 한의학을 통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LA 동국대내 선교 및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 수 200여 명 중 15%정도 된다. 한 목회자는 한의학을 배워 멕시코 선교를 하는데, 이전보다 한의학을 통해 선교할 때 원주민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고 말한다. 선교,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려면 3년이 소요된다. 3년간 전체 학비 10% 장학금을, 목회자나 신부 등 성직자가 한의학을 공부할 경우에는 20% 장학금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의학을 통한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학교 자체적으로도 매주 월요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무료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풍기가 있는 사람, 임이 비뚤어진 사람, 신경마비자 등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흥

미로운 것은 한의학이 라티노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라티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근로 활동을 많이 해서 근육통, 골절상 등 통증이 많다. 그들을 위해 한의학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되고 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 이제는 미국 의과 의사 등 의료진에서 한의학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 한의학이라고 해서 군의관들의 필수 과목으로 한의학을 배운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부상을 당했을 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의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1개월이 넘는 크루즈 여행 중에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한의학 치료실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의학과 수의학이 접촉수 수의사들이 가족들을 치료하는데 탁월하게 사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사들이 한의학 침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한 가운을 입고 있던 한의사들이 치료 대기하는 동안에는 침을 맞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2010년 한의과 대학교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인가? 2010년 학교가 새롭게 부흥하기를 기대한다. 미주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의학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병원에 믿는다. 특히 2010년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의료 봉사활동을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매주 월요일에 의료 봉사하는데, 올해는 분기에 한 번씩 헬스케어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에도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 김인식 총장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한 후, USC에서 MBA를 취득했다. 한국 정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상임이사, 유럽 본부장과 무역진흥본부장으로 한국 무역의 중추적인 자리에서 31년간 일했다. 코트라에서 임기를 마친 후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전시장인 일산 킨텍스에서 CEO 겸 사장으로 3년 3개월간 일하고, 동국대 석좌교수로 초빙돼 LA로 오게 됐다. (지재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오픈 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200<sup>up</sup>~~ Regular Price  
**\$100<sup>up</sup>**

컷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 또는  
염색을 해드립니다

\* 1주년 행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앞서가는 미경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G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지난 1년간 찾아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 - 매리퀴콘드 상가 2층  
**월서 + 웨스턴 코너**

# 플러신대 한인 M.Div 동문 제11회 정기총회

플러신대 한인 M.Div 동문 제11회 정기총회 및 가족 신년 모임이 2010년 1월 10일 오후 6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플러신대 M.Div 졸업자 및 2009년도 졸업 예정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임 회비는 20불이며 부부 동반시 30불이다.

동문회 측은 "제11회 정기총회와 신년 가족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동문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가족간의 친교와 목회

정보교환을 통해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문 모임에는 열반인침례교회(한중수 목사), 조이커뮤니티교회(양택호 목사), 성림장로교회(원영호 목사), 배다니한인교회(방수민 목사),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브리지교회(장세정 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안용식 목사), 중부동양선교교회(김진광 목사), CRC교단총무(박동건 목사), 샘샤논교회(임바울 목사), 팔로마한인교회(서명성 목사),

올타리교회(신동희 목사), 올리브장로교회(강신영 목사), 포도원교회(정영민 목사), 또감사선교교회(최경옥 목사), 열반인침례교회(이선영 목사), 한인컴퓨터교회(조경현 목사), 아름다운교회(SD)(손진락 목사), 글로리아교회(이진석 목사), Mexico 선교(조성현 목사), 예수로교회(박세현 목사), KorAm Interserve(박영국 목사), 청년교회(예삼재 목사) 등이 후원했다.

(이태근 기자)

# 작년 한 해 전화상담 통해 드러난 동포의 애환 생명의 전화, 고독과 외로움이 총 261통으로 최다

생명의전화(바다빛 복사)가 2009년 한 해 동안 상담 내용을 분류한 결과 고독을 호소하는 전화는 총 261통이었고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독과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전화는 작년 한 해 총 2,975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중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는 전화는 총 261통이었다. 동포들의 애환을 담은 전화 외에는 침묵전화와 정보안내 전화, 감사 및 격려의 전화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716통과 283통, 212통이었다.

생명의전화 바다빛 복사는 "동포사회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 비극 등을 미리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는 생명의전화의 노력에도 불행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가슴 아프다. 2010년에도 동포들의 애환을 호소하는 전화를 상담하며 보람과 사명감으로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213-480-0691>

# LA사랑의교회, 2010년 신년부흥회 개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1월 4일부터 16일까지 2010년 제4차 신년특별새벽부흥회를 개최한다.

부흥회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보라 내 것이 되리라' 주제로 열리며, 강사로는 김기섭 담

임 목사, 세계복음선교회 이병희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 대구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 등이 나선다.

교회 측은 "3대가 영적축복의 장인 제4차 신년특별새벽부흥회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권적으로 체험

하길 바란다. 또 이중언어 강사와 함께 두 주간 진행되는 특색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결단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소: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400, LA, CA 90057

# 샘의료복지재단, 제조공장은 완공했지만...

## 영양버터 원료 구입 위한 콘서트 개최

샘의료복지재단이 'SAM 사랑의 영양버터'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담임 립학준 목사)와 유니온교회(담임 이정근 목사)에서 김중찬 콘서트를 개최한다.

샘의료복지재단은 2008년 3차례의 방북을 통해 황해도와 시골 마을에 영양버터를 시범적으로 공급해왔다. 샘의료복지재단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보다 많은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영양버터

제조공장 건립에 들어가 지난 11월 완공했다. 현재 완공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원료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번 콘서트는 원료 구입을 위해 열린다.

샘의료복지재단 측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영양버터를 제공함으로써 그 마음 속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영양버터 사역의 목적이다. 콘서트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실정이 여러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고 굶주

림으로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긍휼의 손길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영양버터는 샘의료복지재단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한 식품으로, 샘의료복지재단은 영양버터로 아사 직전의 북한 어린이 70명을 치료하였으며 그 중 67명을 살린 바 있다.

<콘서트 일정>  
1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담임 립학준 목사)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 17일 일요일 오후 6시 유니온 교회(담임 이정근 목사)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문의: 샘의료복지재단 213-381-1347

# 대통령상 수상 기념, 일백 명 고객 초청 스키캠프



무료스키캠프 참가자와 아주관광 스키/스노보드 전문강사진이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아주관광

아주관광(대표 박평식)은 '일백만불 관광 진흥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고객 일백 명 초청 무료 스키캠프'를 기획, 지난 12월 21일부터 3박 4일간 레이크 타호(Lake Tahoe)에서 진행했다.

'일백만불 관광진흥 대통령상 수상 기념 고객초청 무료스키캠프'는 아주관광 추수감사절 상품 이용고객 및 아주관광 본사를 내방해 상담을 진행한

고객에게 선정기회가 주어졌다. 캠프에서는 무료 스키강습, 눈꽃 투어 등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여행의 틀에서 벗어나 몸으로 배우는 흥미진진한 아주관광만의 스키캠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구성됐다.

아주관광 박평식 대표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국인 관

객을 한국내 유치하고 관광산업발전의 경제 유발효과를 불러온 공로를 인정받아 업계최초의 대통령령상을 수상했다"고 일백만불 관광 진흥 대통령령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큰 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미주한인동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고객초청행사를 준비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문의: 213-388-4000



O.C. 교협 신규임원들(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박용덕 신임회장). © 이태근 기자

# 박용덕 목사 "무릎 꿇고 한해 열심히 일하겠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이취임예배가 29일 오후 7시 남가주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나침반교회 민경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남가주빛나리교회 찬양팀의 찬양,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의 기도,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연합회 회장 서문준 집사의 성경봉독, 신원규 목사의 설교, 한기홍 목사의 축사, 신임회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신원규 목사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남풍과 강풍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신 목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보수와 WCC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교회는 침투하는 자유주의 세력에 건

전한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세워졌는가?"라며 "목회자는 교회에 침투하는 자유주의를 직시해야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신임회장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연합하여 교회간의 연합을 도모하고 함께 교회들을 섬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한기홍 목사는 "교회가 이땅에 소망인 것은 교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는 40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어 교회협의회가 중요하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들이 교회협

의회와 연합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길 바라며, 먼저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미덕으로 화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전한 신임회장 박용덕 목사는 "어떻게 회장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리더의 자리는 좋은 말 듣기 힘든 자리임으로 좋지 못한 말을 들어도 좋다는 각오로 무릎 꿇고 한해 교회들을 위해 일하겠다. 그리고 먼저는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고 목회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족 수련회를 개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배 후에는 박용덕 목사의 새책 '파워 인생의 비밀' 출판 기념회가 열렸으며, 행사는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태근 기자)

## 물로 남가주 교회전역.

가볍게 리베이트 받으세요.

물값은 향후 수년간 계속 올라갑니다.

최신형 HET 변기와 전혀 물을 쓰지 않는 소변기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LADWP 지역 교회특별상당**

**Toilet - \$300**

**Urinal - \$500**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T.877-393-8881**  
15370 Fairfield Ranch Rd Suite B2, Chino Hills, CA 91709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금-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월 19일(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앞선하며 참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 “UAE 원전 수주, 고비마다 하나님 역사”

## [신년대담] 한국전력 고문 정근모 장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안에 연합과 일치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났던 2009년을 뒤로하고, 이제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2010년의 비전과 소망을 들어본다. 올해 신년대담에서는 뛰어난 과학자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최근 한국형 원전 수출에 크게 기여한 정근모 장로(한국전력 고문)를 만났다.

지난 2009년 한 해가 저물어가던 그때, 우리 국민들 전체를 들뜨게 한 기쁜 소식이 있었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 특히 1959년부터 시

작된 한국 원자력사(史) 50년의 '산 증인'이자 '타임캡슐'로 불리는 정근모 장로의 소회는 남달랐다.

대한민국은 1959년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에 정부 내에 원자력원을 설치했다. 그 당시 약관의 나이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던 청년 정근모는, 김법린 초대 원자력원장의 보좌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기여해 왔다. 이번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전력 고문으로서 수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미국 등을 오가며 막후 지원을 했다. 특히 “이같은 쾌거는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시나리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를 만나

2010년 한국교회에 전하는 비전을 들었다.

**‘제3의 불’ 원자력 수출 쾌거, 미래의 소망 비출 것 전문인선교를 잘 감당할 때 ‘선교대국’ 될 수 있어**

**-UAE 원전 수주는 2009년 끝자락에 온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과정에서 헌전 고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기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 당시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육용 원자로를 들여왔으니, 올해가 정확히 한국 원자력사 50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미래가 원자력에 달려 있다고 예견했고, 실

제로 그렇게 이뤄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불과 빛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을 나무, 석유와 석탄에 이어 ‘제3의 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3의 불’이 비추는 빛이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공계가 외면받지만 그 당시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두 ‘과학 기술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빠져서 이공계로 진학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50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했으니 감개무량하지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던만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09년 1월 한국전력 고문으로 취임했고, 2월부턴 UAE의 원전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 고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



한국전력 상임고문으로서 UAE 원전 수주를 위해 기도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정근모 장로는, 이번 수주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는 초석이 놓였다고 밝게 웃었다.

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여섯 군데에서 참여했는데 그중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50년 전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기술을 전수해줬던 곳입니다.

그 외에도 경쟁한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예선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만 남고 결선에서 결국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물론 UAE 당국 실무자들의 분석 결과 우리의 기술력이 월등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프랑스가 막판에 외교력을 총동원했던만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실력이 있더라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류재광 기자)

## [사설]

경인년(庚寅年)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대박설로 뒤덮였다. 출퇴근길은 그야말로 대란(大亂)이었고, 주요 교단 및 단체들의 신년하례예배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이 1시간여 늦게서야 예배를 드렸고, 그나마도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심지어 예정했던 예배 장소가 고지대(高地帶)인 탓에 자동차로는 접근이 불가능해 예배를 무기한 연기한 곳조차 있다.

신년 벽두부터 쏟아진 이 감당할 수 없는 눈더미에, 당장 내일의 출퇴근길을 생각하며 막막해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목회 혹은 생계에까지 큰 타격을 입어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가 대자연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과,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되새기자. 또한 헛바퀴처럼 돌던 일상에서 잠시만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고 배려하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 삼고 쫓다 삼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자.

먼저 2010년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시대 한국사회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경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화두는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무엇을 지향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그저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다보니 중간중간 내세울 뿐 통일된 화두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혹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세상의 화두인 경제논리에 매몰되어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2010년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될 수

있어야 한다. 교파간, 기구간의 물리적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 연합집회 한번 근사하게 하자라는 의미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감리교 사태와 같은 분열은 속히 매듭짓고, 적어도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신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차차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이라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감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2013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와 관련해 성숙한 대처를 주문하고 싶다. WCC와 관련한 입장자는 이해할 수 있지

은 교회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세속적 기준으로 성급히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옳다. 그것은 비판은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도 많았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그것은 작은 허물이라도 처절히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한국교회는 개혁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로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세상을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끝없이 세상을 개혁하는 주체였던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교회와 세상을 향해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개혁의 요구를 받고서야 스스로를 개혁하나

으로 몰아붙이면서 중세 교황청을 방불케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 특히 그 중 대표적인 인물들인 최삼경 목사(남양주 퇴계원면 소재 빛과소금교회)는 삼신론과 월경임태론 이단 사상과 온갖 불법 의혹에,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는 학력 위조의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명 없이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이같은 행태가 하루 속히 뿌리뽑히고 바로잡히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 사역 뿐 아니라 연합과 일치운동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도 법적 판결을 내리는 일은 최고의 학문적·도덕적 소양이 검증된 이들에게 맡기고, 또 항상 잘못 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두지 않는가. 이제 교계도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사이비 이단연구가들을 축출하고 건전한 신학 논쟁과 이단 대처사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인재를 키워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성실한 탐방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소속 단체와 지역, 국가를 넘어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자유의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 말이다. 이들을 통해 나라와 세계가 진보할 뿐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분명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껏 일궈놓은 성과와 업적들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역사와 세계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교회됨’을 참으로 온전히 회복할 때, 한국교회는 진정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만, 그것은 논란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수교계에는 WCC를 무조건 반대하여 세계적인 대회에 차질을 빚게 하기보다 올바른 신학과 신앙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보교계 역시 WCC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오해된 부분들이 있다면 속히 바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2010년에는 보다 성숙하고 성결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교회의 온갖 치부들이 반기독교적 성향의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됐다. 그들의 고발에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비판의 잣대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된 양 짐소봉대할 경우도, 혹

가는 모습까지도 간혹 눈에 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2010년에는 기독교계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들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비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문제가 선결 과제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단사역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조자용 험갈 쓰듯 해온 탓에, 한국교회의 현 이단사역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사이비 이단연구가들은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 불의, 공모, 선동, 왜곡, 조작 등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일삼으면서도, 그에 대한 비판은 “이단사역을 방해하는 이단들의 수작”

## 해가 두 번 바뀌었는데... 감리교 사태는 여전

### 이번엔 감독 6인과 본부 임원들간 직무대행 임기 논란

두 차례나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독회장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기’ 논란에 휩싸였다. 6개 연회 감독들이 법원이 이규학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며 정한 임기가 지난 12월 31일로 이미 종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본부 임원회가 ‘감독회장 임기에 대한 공지사항’과 ‘6인 감독성서 반박문’을 발표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0부는 2009년 5월 20일 감리교회 사태에 관련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이규학 목사를 선임했다. 이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2월 31일까지 감독회장 선거를 새로 실시하라”고 조정합의를 내렸다.

이를 근거로 서울남연회 임영훈 감독, 경기연회 정판수 감독, 동부연회 원종국 감독, 충북연회 조문행 감독, 남부연회 박영태 감독, 삼남연회 정양희 감독 등 6개 연회 감독들은 “12월 31일까지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행정복원과 감독회장 선출을 못할 경우 스스로 지도권을 자인하고 직무대행의 자리에서 퇴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던 것. 이들은 “지난 17일 총회개회를 결의했지만 최대의 소극적 태도로 공조조차 못했고 법원이 부여한 권한도 연말이면 자동 소멸될 처지”라며 이규학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이에 본부 임원회는 “2009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조정은 ‘피고의 직무대행자 이규학은 위 선거를 실시하고 위 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감독회장의 취임시까지 대표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임기가 12월 31일까지라는 주장은 단지 ‘재선거 기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런 때일수록 무리한 주장을 다 내려 놓고 오히려 감리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차마 감리교회를 떠날 마음마저 품은 평신도들의 답답한 심정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임영훈 감독은 기독교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신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리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온 교회들이 간구하고 있는 판국에, 어려운 때는 자기 자리를 버리고 일영으로 도망쳤던 기회주의적 본부가 또 물을 흐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본부 내무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본부임직원 일동이라는 애매한 명의로 감독들의 진심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한편 감독회장 사태로 촉발된 감리교 사태가 벌써 15개월째를 맞는 등 장기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결 기미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행정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총회를 여는 것 역시 교단 내 입장이 분분해 쉽지 않은 상황인 데, 감리교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도 안갯속에 있는 형국이다.

(송경호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0%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 구세군 자선냄비, 81년 만에 최고액 기록

## 목표치 40억 돌파... 훈훈한 사연들도 이어져

2009년 12월 31일 마감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이 81년 만에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번 구세군 자선냄비에 모인 성금은 2009년 12월 30일 현재 거리모금 및 기업후원금을 포함해 현금이 37억1736만 82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원대상 등에 직접 지원된 현물지원이 3억여원으로 2009년 목표인 4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자선냄비 모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늘었으며, 중소기업의 참여와 직장인들의 개별적인 후원이 늘어났고, 참여한 대상도 시민은 물론 군인, 유치원생,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개인후원자들 중에는 황금열쇠를 넣어진 손길로부터 1억원을 기부한 노부부의 사연, 삼성여 자선냄비에 3천3백만원을 넣은 손길 등 아름다운 나눔이 이어졌으며, 특히 준비된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다. 자선냄비를 위해 1년간 조금

씩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전달한 이들도 있었고, 나눔의 확산으로 행복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연들이 성금과 함께 전달되면서 자선냄비를 기다리며 나눔을 준비하는 더욱 훈훈한 사연들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휘슬러의 무료급식차량과 찾아가는 자선냄비 차량의 지원, 파리바게트 케익 지원, 농협이 꿀 지원, 테라폰 등 다양한 현물 용품 지원도 이어졌다.

구세군 대한본영 전광표 사령관은 "81년 기부문화의 역사로 희망나눔의 시작인 자선냄비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선냄비 모금액이 사용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현하였다.

구세군은 2009년 국민들의 사랑의 성금을 가지고 1월부터 계획된 예산대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대웅 기자〉

# 압도적 지지로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 확정

# 이광선 목사 "모두와 화목하며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광선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직후 지인들과 포옹을 나누고 있다. © 송경호 기자

이광선 목사(신일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16대 대표회장 당선됐다.

이목사는 29일 오후 2시 제16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제20-2차 실행위원회에서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자 189명 가운데 103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대표회장 당선됐다. 홍재철 목사는 54표, 한영훈 목사는 31표, 무효 1표였다.

지난해 현 임신형 대표회장과의 경선에서 '공명선거'를 주장하며 선선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이목사는, 결국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됐다. 당초 세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목사가 1차 투표에서 차점자와의 현격한 표차로 과반수를 획득함에 따라 개회 후 약 1시간 반 만에 모든 선거가

종료됐다. 당선자 발표 직후 이목사는 다른 두 후보와 함께 악수를 나누고 손을 맞잡으며 '화합'의 의지를 나타냈고, 타 후보자들 역시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목사는 자신이 확정되자 단에 올라 "하도 목이 타서 물을 2병이나 마셨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 준 교단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한기총은 하나다. 거룩하고 온전한 한국교회를 보전하고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한기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이목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와 '하나됨'을 거듭 강조했다. 이목사는 "모든 교단 지도자들과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한 교단의 후보가 아닌 한국교회 전체의 후보라는 심정으로 나섰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CC 개최로 인해 불거진 갈등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과 화목하게 지내길 원한다"며 "이웃과 같은 관계로 하나로 승화시키는 지혜를 갖고 일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사회에 더욱 기여하고 남북자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이목사는 2006~2007년 통합제91회기 총회장을 지냈고, 특히 사학법과 관련해 강력한 투사의 면모를 보여 바 있다. 선거전에서 WCC 문제로 타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연대하여 2014년 WEA 한국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기총 회관 건립',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및 한기총 위상

강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사회봉사센터 3곳 건립', '대사회적 교회의 책임 수행을 위한 전담특별 대책기구 설치',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랑나눔기 운동',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버 문제 적극 대처'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날 선거는 실행위원회 개회에 앞서 실행위원단의 신분확인을 거치며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특히 명찰 배부시 휴대전화를 전원 수거하고 회의 도중 핸드폰 사용이 발견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즉시 퇴장시키기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는 이전과 달리 3명의 후보가 경합함에 따라 1차 투표에서 한 명의 후보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특단의 조치였으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잡음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 이광선(李光善) 목사(1944년 생) 약력

- 학력
  - 1963. 2. 27. 경안 고등학교 졸업
  - 1965. 2. 14. 경안 성서 학원 신학예과 졸업
  - 1972. 2. 27. 장로회 신학 대학 졸업(Th.B)
  - 1974. 9. 12. 연세대학교 연합신학 대학원 졸업(Th.M)
  - 1983. 12. 3. Fuller Acts 신학원 목회학 박사 취득(D.MIN)

# 옥한흠 목사 "교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 인터뷰 갖고 한국교회 문제 지적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낙관주의가 판치는 상황이라 걸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기독교 스타도 나올 것이다. 긍정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의 글이 아무런 비판 없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 그 흐름이 한국교회를 주도하는 쪽에서 비롯되는 것도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려면, 나부터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경도를 걷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다. 나부터 용기가 없다."



사랑의교회 옥한흠 원로 목사가 크리스채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지난 목회를 돌아봤다.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받고 돌아와서는 즉시 사회의 혼탁함에 휩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묻어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자들은

저어들대로 살겠다'라고 체념하는 부모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라고 옥목사는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주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것은 "100% 목회자의 잘못"이며 "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본질이 파괴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옥목사는 세속주의와 함께 목회자의 공급 과잉을 또 하나의 병폐로 꼽았다. 그는 "목회자가 넘치기 때문에 출현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밀린 패배자는 모든 사고를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갖게 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심해질 수 있다"며 "그렇수록 교회의 힘이 파괴적인 쪽으로 쏠리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목회자가 넘치는 현상적 문제 이면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고 했다.

옥목사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점 목회현장은 살벌해지고, 그러다보면 교회 밖 사람들에게 비치는 교회 이미지도 기업이나 구멍가게 같은 이미지로 박힌다.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반면 기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안정된 교회 분위기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심해진다"면서 "대형교회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다. 그러면서 점점 교계 내에는 심각한 갈등구조가 생긴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구도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글을 통해 전해진 옥목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있었다. 그는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상설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힘으로, 프로그램 가지고는 도무지 대안이 없다"며 "이런 소리를 하면 비판론자

라며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할 만한 자유도 없는 기막힌 상황"이라는 말까지 했다.

옥목사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자신의 지난 40여 년간의 목회를 돌아봤다.

그는 지난 시절의 회한을 묻는 질문에 "말로하기 힘든, 목회자의 양심으로 나만이 아는 회한이 어찌 없겠는가"라며 "목회자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처럼 포장된 사람은 더 그렇다.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차라리 노출이 되고 돌을 맞고 그랬으면 그것으로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텐데..."라고 끝을 흐렸다.

사랑의교회도 그의 회한 가운데 하나였다. 옥목사는 "사랑의교회를 좀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답게, 성도들을 좀 더 제대로 갖춰 놓고 물러나 앉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며 "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 있으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뒤집어 놓고도 모자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옥목사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말했다.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출산이 저하되면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 닫는 교회도 생길 것"이며 "기후변화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터지면, 한국 경제는 삼시간에 뒤엎어질 수 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지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불과 20년 후의 이야기"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연합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의 전문성을 살려서 한국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NGO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도 같이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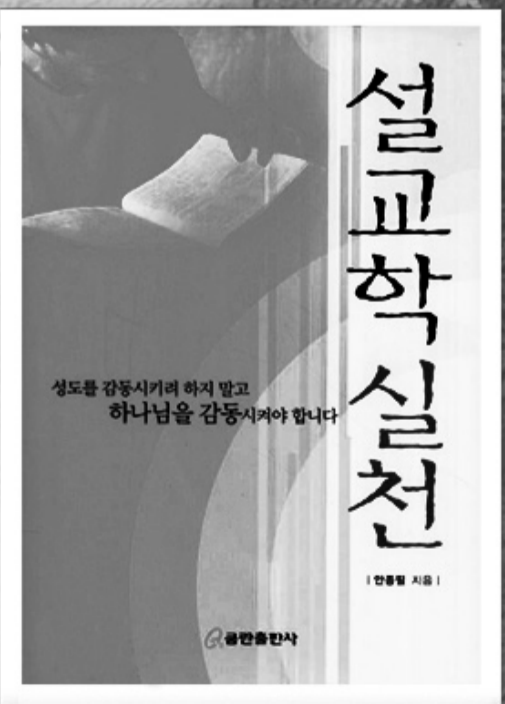


### 주님을 찾아가는 길

전도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부흥과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하지만 해결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전도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어려울수록 복음 진리의 핵심 내용을 언제나 어디서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도 통령입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민경설**  
민경설 저음 / 232면 / 신국판 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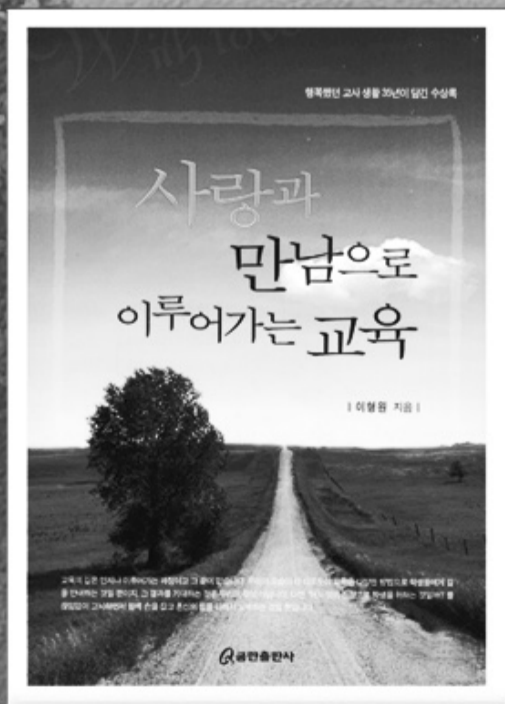


### 설교학 실천

성도를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설교 성도의 원리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구성! 실천 설교론에 요하는 저득 작성법과 본문 설교 작성법의 원리를 분석!

한국신학대학교 대표 **안종필**  
안종필 저음 / 480면 / 신국판 무선



### 사랑과 만남으로 이루어가는 교육

행복했던 거창고와 셋별중학교 교사(교장) 생활 35년이 담긴 수상록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이형원**  
이형원 저음 / 372면 / 신국판 무선

# 뮤지컬 히즈라이프 초연, 청중들 찬사 쏟아져

## “애틀랜타 기독 뮤지컬의 출발점 됐으면...” 격려도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과 승천까지 전 생애를 그려낸 뮤지컬 ‘히즈 라이프(His Life)’가 4일 오후 7시 안디옥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막했다. 애틀랜타 초연인 만큼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시연된 이날 공연에는 4백여 청중들이 참석해 기립박수로 멋진 공연에 응답했다.

뮤지컬이 끝난 후 청중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쏟아내며 배우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공연의 여운을 마음껏 음미했다.



#멋진 노래실력, 음향, 연기력 ‘3박자’ 갖춘 공연

이번 뮤지컬은 음향과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이뤄냈다는 평이 많았다.

이대홍 목사(총신교회)는 “퍼포먼스하는 분의 리얼한 연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전달해 가슴 깊숙이 감동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흥미로웠다”며 소감을 전했고, 조이스 로버슨(Pilgrim Missions International Church)씨도 “배우들의 연기와 멋진 노래실력이 합쳐져 웅장한 조화를 이뤄냈다”고 극찬하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부활하는 장면이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예수의 생애 새롭게 바라보게 돼

뮤지컬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됐다고 밝힌 이들도 있었다.

김을환 안수집사(주안침례교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것을 (뮤지컬을 통해)보면서, 삶 가운데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에 늘 깨어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졌다”며 “사단의 현존하는 모습을 뮤지컬을 통해 조명했다는 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다.

이름을 요구한 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장면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지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체험을 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신자, 은혜 받은 간증 전해

한편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밝힌 리즈 모세스(Liz Moses) 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처형의 자리까지 가시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고통과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수 역할을 맡은 랜디 브룩스(Randy Brooks)씨는 첫 공연이 끝난 후 “이 뮤지컬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다른 시각, 더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면 한다. 믿는 이들은 뮤지컬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

게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안디옥교회 교인들도 다수 참여해 탁월한 연기실력을 보여준 이번 공연에는 담임목사인 허연행 목사도 십자가 길의 구레네 시몬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특별히 무대 의상이 아닌 양복을 입고 등장해 십자가를 지는 연기를 펼친 허목사는 “1세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21세기 현재를 연결하는 장면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제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또 십자가를 진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첫째는 회중을 대표해서 지는 십자가, 둘째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 뮤지컬을 안디옥교회에 불러오며 수고한 사역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교회 목회자인 조기원 목사(화평장로교회)는 “안디옥교회가 큰 수고를 통해 성서적 뮤지컬 문화의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고, 이것을 계기로 기독교문화가 애틀랜타 지역사회에도 생동적으로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남겼다. <권나라 기자>

# 피소 목회자들 언론에 호소문 게재

워싱턴침례대학교(총장 정만석)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6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한인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호소문을 냈다.

들에게 요청했다. 피소 목회자들은 학교 측의 소송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민수영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을 맡겼다. 현재 이원희, 손형식, 박재근, 한종태, 조

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 손실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받으면 일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피고소인들이 자기들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며 “장총장이 변호사 뒤에 숨어서 대화를 안 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젠 장총장도, 이사회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6명의 목회자들과 다른 한 명의 목사에게 각각 2만5,000달러의 배상과 공식 사과 성명을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번 고소장에는 14가지 항목을 내용으로 총 1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공정회만 법정으로 비화되기 전 공식 사과와 학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청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사실을 밝히고 명예 훼손

## “하나님을 위해 대화를 원했던 것 뿐인데...”

용수, 서인석 등 피소 목회자들은 호소문에서 “(장 총장 선임에 대한) 공청회를 연 후 지난 10월31일 임청남 액수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며 “기본적인 침례교의 특성에 대하여, 또 신앙적 흐름에 있어서 하나 됨을 위하여 대화를 원했던 것 뿐인데 문제가 커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모두 본교 졸업생들이요 목회자들이므로 대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이면서 재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한인

서 제기된 문제들은 침례대학의 앞날을 염려해 침례교 출신이 아닌 장총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었을 뿐이며 중재자를 통해 여러 번 화해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피소 목회자들이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법정에서 비화되기 전 공식 사과와 학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청해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사실을 밝히고 명예 훼손

# 두날개양육시스템 미주 4단계 집중훈련 돌입



강의하는 김성근 목사.

두날개양육시스템 제2기 미국 집중훈련의 막이 올랐다.

1월 4일부터 8일까지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는 두날개양육시스템 제2기 미국 집중훈련 4단계 제자훈련이 열린다. 두날개컨퍼런스 1-3단계 집중훈련을 거친 이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4단계 집중훈련에는 전 미주 곳곳에서 4백여명이 참가했다.

정오부터 등록 및 점수를 거친 후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강의 시작했다. 첫번째 강의 주제는 ‘제자의 삶 1과’였다. 김성근 목사는 3차까지의 강의를 짧게 정리한 후 양육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전도, 정착 단계 후 양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교육이 아닌 양육하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양육은 인격적인 신뢰를 바

탕으로 하는 것이다. 신뢰가 오가지 않으면 양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을 위해 ‘내가 변화야 한다.’며 ‘주님을 본받으라. 그것이 제자 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양육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김 목사는 ‘주님의 심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마음으로 가르쳐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교회의 경우는 소그룹을 많이 만들되,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를 많이 만들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조급한 마음으로 제자삼고자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목회는 평생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를 배출하라. 리더를 배출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라”고 말했다.

4단계 제자훈련은 5일장 18개 강의가 이뤄진다. 4과 7일에는 제자의 삶이, 5일에는 은사발견 세미나, 6일 중보기도와 교강의가 진행되며 8일은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돼 있다. <윤주이 기자>

# 기도로 새해 새 출발하는 뉴욕 교회들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교회는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분주하다. 지난 한 해를 훌훌 털고 새해 소망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새벽기도회, 금식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장로교회**  
뉴욕장로교회(담임 안민성 목사)는 새해를 맞아 특별기도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1월 9일까지 새벽 5시 45분에 열리고 있는 기도회는 ‘오직 믿음으로(창 15:6)’를 주제로 진행되는

다. 약 2주간 진행되는 기도회 개근자에게는 도서상품이 상품으로 주어진다.

**효신장로교회**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는 1월 4일부터 9일까지 매일 새벽 5시 50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를 주제로 특별 기도회를 개최한다. 기도회는 문석호 목사가 인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여러 모양으로 도우신 손길을 돌아보는 메시지가 선포된다.

**후리성제일교회**  
후리성제일교회(담임 김종헌 목사)는

‘신년 서원 축복 새벽 성회’를 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성회는 오전 6시 후리성제일교회에서 열린다. 2010년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결단, 간구하고 싶은 내용을 준비해 뜨겁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목양장로교회**  
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는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 45분 신년 축복 새벽기도회를 진행한다.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갖고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목양장로교회는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 받는 2010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는 작년 연말부터 21일 작정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1월 8일까지 열리는 ‘연말연시 다니엘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는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가 기도로 기적을 만들고자 준비한 것으로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는 기도회 기간동안 △새 시대 새 영 새 마음 새 축복을 위해(겔 36:26)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구원을 위해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 △불행함 호환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 때 천국의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한 일과 할 일을 위해 특별한 기도하고 있다.

**뉴욕베데스다교회**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 30분 특별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는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는 각 개인, 목장별 새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새언약교회**  
새언약교회(담임 이희선 목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한 주간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 시간을 가진 새언약교회는 “계속

되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마 6:33),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지녀들, 건강), 비즈니스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일장로교회**  
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헌 목사)는 새해 첫 날 금식기도를 드렸다. 김종헌 목사와 성도 33명은 1월 1-2일 라마나옴 기도원에서 금식기도회를 가졌다. 각자 통성 기도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짝을 지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종헌 목사는 “올해는 영적 풍년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성원을 보내주신 한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카멜마운틴랜치 CC

새로워진 한인 Ownership! 한인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b>골프코스 1박2일 스페셜 패키지</b></p> <p>- <b>골프코스 :</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rmel Mountain Ranch Country Club</li> <li>Vineyard Golf course</li> </ol> <p>Any two round of golf at any course</p> <p>- <b>호텔 :</b> (별도추가요금)</p> <p>Quality Inn &amp; Suites / Holiday Inn / Hilton Garden Inn</p> <p>- <b>가격 :</b> 2명 이상</p> <p>주중 : \$139.00 per person 주말 \$189.00 per person</p>	<p><b>Torrey Pines Golf Course</b></p> <p>(2008 US Open 열린곳)</p>	<p><b>카멜마운틴 랜치 CC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Level의 골퍼가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코스</li> <li>- 연못과 크릭이 코스의 흥미를 돋우는 곳</li> <li>- 샌디에이고 요지에 위치!</li> <li>- LA 에서 2시간 거리</li> </ul> <p><b>문의 858-922-2644</b> 14050 Carmel Ridge Rd. San Diego, CA 92128</p>
--	--	--

# 2010년 시카고 한인교회들은 기도와 영적 각성

## 특별새벽기도회 및 연합부흥성회 등 개최

2010년 새해가 가까워 오고 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들도 신년을 맞이할 준비에 바쁘다.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나 부흥회가 1월 초순부터 각 교회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1월 1일 신년예배를 드린 후, 4일부터 9일까지 특새를 드린다. 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사)는 1월 4일부터 9일까지 신년 다짐 특새를 드리고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김기완 목사)도 이 기간동안 신년특새를 드린다. 시카

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도 "형통의 길을 열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스코키에 개척된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윤국진 목사)도 1월 4일부터 9일까지 "God First"라는 주제로 특새를 진행한다. 예수사랑감리교회는 매일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나 개척 이후 특새는 처음이다. 매일 새벽 6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며 기도회 후에는 아침 식사까지 제공한다.

성회를 여는 교회도 있다. 레익뷰장로교회(박규완 목사)는 1월 2일부터 15일까

지 "회복인생"이란 주제로 매일 새벽 5시 30분 특새를 드린 후, 특새를 마치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세미한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회복"이란 주제의 영적각성집회를 연다. 한인서부교회(조현배 목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주제로 신년축복성회를 연다. 강사는 담임 조현배 목사이며 1월 1일 저녁부터 1월 3일 오전까지 열린다. 이 기간동안 새벽기도회와 저녁예배 등의 일정이 있다.

시카고 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1월 1일부터 2일까지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신년금식연합성회로 개교회 집회를 대신한다. 이 성회의

강사는 로턴크래프트한인교회 박주섭 목사다.

참길장로교회(하영택 목사)는 신년특새가 아닌 송구영신특새를 드리며 12월 28일부터 1월 9일까지 "생명의 삶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기도한다.

순복음시카고교회(정길영 목사)는 신년 축복 다니엘특별새벽기도회를 1월 4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개최한다. 이에 앞서서 1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순복음중북부지방회 주관의 신년 축복금식성회가 "성령님과 함께 회복하자"는 주제로 순복음시카고교회에서 열린다.

(김준형 기자)



지난 27일 시카고오라토리오협회의 제32회 정기연주회가 갈보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32년 명성 그대로” 오라토리오 연주

### 시카고오라토리오협회 정기연주회

32년간의 명성은 그저 얻어진 명성이 아니었다. 시카고오라토리오협회가 주최한 32주년 정기연주회는 수준높은 연주와 예술성, 다양한 곡으로 27일 갈보리교회를 가득 채운 성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셨다.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주께서 크신 권능으로 옷 입으셨다(R.M. Stuits), "우리 구원하신 주께(Everett Titcom), "하나님께 영광(Gordon Young)" 등을 연주했고 바이올린 듀오는 주기도(A. H. Malotte), "시온성과 같은 교회(I. Haydn)" 등을 연주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짜르트의 명곡 대관식 미사 중 2악장 "영광송"과 Johann Pachelbel의 8부 합창곡 "새노래로 주께 찬양"이 연주돼 큰 박수를 받았으며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를 포함한 4곡이 연주돼 성탄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연주회의 지휘는 장영주 목사, 피아노는 윤지민 씨, 오르간은 서신희 씨, 바이올린은 가브리엘 황, 데이빗 맥스 씨가 맡았다. 장 목사는 "점점 혼탁해지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교회 음악의 전통과 역사를 꾸준히 계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찬양할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연세대에서 음악을 전공한 후, 일리노이 주립대 어머니 삼페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목회자가 됐으며 한국 서라벌예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활발히 활동하다 도미해 시카고오라토리오협회를 설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김준형 기자)

## 전성진 목사, 흑인교회 연주회에서 솔로 맡아

노예 해방 후에도 흑백 차별이 여전했던 1920년대부터 시카고 남부 흑인가를 지켜온 안티오크교회(Antioch Missionary Baptist Church)가 57번째 개척하고 있는 성탄 기념 메시아 연주회에 전성진 목사가 나섰다. 그는 올해로 15년째 이 연주회에서 테너 솔로를 연주하고 있다.

클럽에서 94년 프리웨이를 타고 남쪽으로 20마일 가까이 가다 63가에서 내려 고개를 돌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안티오크교회다. 이 교회는 '결코' 부유해 보이지 않는 이 지역을 오랜 세월동안 지키며 흑인 커뮤니티의 안식처가 되어 왔다. 이미 1950년대에 성도 5백명에 이르렀고 지금은 1천명이 넘는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묵직한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는 예수 승천을 그린 거대한 벽화와 비둘기가 날아가는 벽화가 보인다. 그 비둘기 벽화 밑에는 침례탕이 자리하고 있다.

90년이 다되어 가는 이 교회에는 올해로 57주년을 맞은 시니어 콰이어가 있다. 이들은 매년 성탄이 되면 흑인만이 가진 열과 정(情)을 발산하는 메시아 연주회를 연다.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로 마음껏 몸을 흔들며 자유롭게 외치는 이 연주회는 한인교회나 백인교회에서 보기 힘든 이른바 '흑인 스타일'로 진행된다.

전 목사가 매년 이곳을 찾는 이유는 베이스 윌리 브라운 때문이다. 1930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브라운은 당시 흑인으로서 드물게 음악으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며 왕성히 활동해 NBC 방송국

## 흑인 커뮤니티에서 메시아 찬양하다

의 한 쇼에서 솔로리스트를 맡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음악인이자 교수이며 크리스천으로서 브라운은 흑인 사회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제 곧 80세를 맞이하는 그도 전 목사와 함께 이 음악회에 매년 서 왔다.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무대까지 왔고 무대에서도 거동이 불편해 일어서고 앉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듯 보였다. 그러나 일단 베이스 솔로 연주가 시작되자 교회



당의 스테인글라스가 흔들릴 정도로, 뿜어내는 듯한 강한 중저음의 연주로 "역시 브라운"이라는 찬사와 기립박수를 받았다.

전 목사는 시카고리릭오페라단에 있을 때 브라운을 알게 됐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

로 친구가 된 그들은 20년째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카고리릭오페라단 역사상 최초로 입단한 동양인 연주자였던 전 목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당시 오페라단의 고참이었던 브라운은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 주었다.

이날 무대에 선 소프라노 타나 소보손, 옐토 비키 핏맨도 모두 20년 지기들이다. 베이스인 브라운은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적합한 테너가 없을 때 꼭 전 목사를 초청했다. 흑인 커

뮤니티 내에서 한인인 전 목사가 성가대 지도도 하고 15년째 메시아 연주회에 초대받아 온 이유도 브라운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전 목사의 실력을 그들이 높이 사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 목사도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목사부부합창단 창단식 등에 브라운을 초청해 미국

주류사회도 인정하는 실력을 한인교계에 소개한 바 있다.

이날 전 목사는 유일한 한인으로서 무대에 서서 메시아 중 테너 솔로 5곡을 완벽히 연주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다. 전 목사가 곡을 마칠 때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연주를 마친 후 전 목사는 브라운과 굳게 악수한 후, 성가대원들과 한행 한행 인사했다. 객석에서는 전 목사가 음악목사로 섬기는 갈릴리교회의 이경희 목사와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었고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닥터 폴(전 목사의 영어 이름)과 같이 왔느냐", "놀라운(amazing) 실력이다", "내년에 꼭 또 와서 음악회를 함께 감상하자"고 말을 걸어 왔다.

이날 2시간 이상의 연주회를 마치고 전 목사가 받은 사례금은 그가 교수 시절 1시간 성악 레슨을 해 주고 받았던 수업료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한창 잘 나가던 그때보다 지금은 더 사랑한다. 그는 그 사례금으로 자신을 응원한 갈릴리 성도들과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교제를 했다. 음식을 먹느라 정신없는 기자에게 그는 브라운에 대한 소개와 한흑사회의 연합에 관해서 말을 시작해 자신이 꿈꾸는 음악 세계와 미래, 음악을 통한 한인교회의 연합과 나눔에 관해 쉬지 않고 말했다. 그가 이날 연주회에 갔던 이유나 그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했던 이유는 친구 브라운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김준형 기자)

##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군대로!

### 새해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표어들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들도 기도하며 2010년 교회를 이끌 신년 표어를 뽑고 있다.

궁뉴스장로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한 해를 보낸다. 최문선 목사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어를 정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복5장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계획보다 더 놀라게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받고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스교회는 행11:21 말씀에 근거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많은 영혼이 돌아오리라"로 정했다. 원종훈 목사는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난 6년간 정착기를 보냈다. 금년 한해는 분신자 전도에 주력하는

해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올해 표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 다만 세부 실천 사항으로 예배, 사랑, 선교를 꼽았다. 이요한 목사는 "예배는 하나님 사랑, 사랑은 성도 사랑, 선교는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뉴라이프교회도 "찬양과 기도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지난해 표어를 그대로 지킨다. 장준원 목사는 "갈급한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찬양과 기도의 두 날개로 더 높이 비상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소망을 나타냈다. 두란노침례교회도 지난해 표어 "잃은 영혼을 구하여 제자화하는 교회"를 올해 그대로 지킨다. 이준목사는 "우리가 제자가 되자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고 교회의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밖으로 나가 또 사람들을 전도해 제자로 삼는 제자화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년 교협·교역자회 취임식보다 기도회로

### 신년하례회 겸해 기도회 하며 취임식 대신

올해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와 시카고교역자회는 양대 기구 회장 이취임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매년 회장 이취임식을 주관해 왔던 시카고 지역기독교경회장단협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시카고뿐 아니라 미주 대부분의 한인교회 연합체들은 총회를 거쳐 회장이 당선되면 회장 취임식을 겸해 회장이 취임하는 교회를 개회해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 시카고 지역은 양대 단체가 별도로 취임식을 열어 오다 3년 전부터는 중경회장단협의회와 주관 아래 공동으로 취임식을 열어 왔다.

한윤전 교역자회장은 "총회에서 이미 취임 절차를 밟았는데 별도의 취임식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 기구는 총회시 회장이 결정되면 그 자리에서 교협은 교협기, 교역자회는 십자가를 전임회장이 신임회장에 건네주는 형식으로 취임식을 한다. 한 교역자회장은 "연합기구는 목회자들이 개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

는데 별도의 이취임식은 교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 교역자회장은 "중경회장단협의회와 어른신들을 만나 뵙고 이유를 설명드린 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행사 주관단체인 중경회장단협의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정상균 회장은 "시카고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장이 취임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그동안 해 오던 전통이 있으므로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김준형 기자)

# 고객님의 성공이 IEBEE.COM의 성공입니다.

> One Stop e-Commerce Solution Provider

**SHOPPING MALL + POS SYSTEM**

www.ohayousa.com

www.basicjunk.com

shop.hamsousa.com

www.cfusa.com

www.sbs-int.com

www.cptad.com

> 인터넷 비즈니스의 동반자 IEBEE.COM

> 한인 최대, 최고의 시스템 및 인프라! **월 \$9.95**

- LA Downtown, 자체 IDC 보유
- 1GB 빠른 인터넷 백본
- 100대 HP, Dell Server 보유
- SAN System 인한 100% 데이터 안전 및 백업 서비스
- 방화벽 및 모든 네트워크를 듀얼로 구성한 튼튼하고 안전한 호스팅, E-mail 서비스

>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마케팅 담당자, 웹 메이크업 담당자, 제품사진 담당자,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전문가들이 고객님의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을 책임집니다.

3255 Wilshire Blvd, Suite 1420, Los Angeles CA 90010 | Tel : 213-386-3900 | Fax : 213-386-3996 | Email : info@iebee.com | www.iebee.com



# 2세와 함께 하는 새벽집회, 40일 새벽기도회 등 다양

북가주 각 지역 한인교회는 2010년 신년을 맞아 특별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북가주 한인 교회 중에는 신년을 맞아 하나 님께 간구하면서 40일 새벽기도회, 2세대들과 함께 하는 새벽집회 등 독창적인 방법으로 새벽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는 2010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2010년, 축복의 3장 16절이란 주제로 연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매일 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열린다.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는 아베스 특별새벽집회가 12월 28일 월요일부터 내

년 1월 2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진행된다. 새소망침례교회(이동진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2세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이동진 목사는 "지역에 있는 2세대도 함께 와서 은혜받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세와 함께 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2010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21일 새벽 5시 30분에, 22일에 새벽 5시 30분에 김성문 목사가 강의하며, 23일 토요일 새벽 6시에 벤자민 목사가 강의한다. 특히, 토요일 새벽에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시

간 진행된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는 2003년부터 시작한 40일 새벽기도회를 열은 것으로 유명하다. 매년마다 열리는 40일 신년 새벽기도회에 올해 들어 평균 85명 이상 교인들이 매일같이 기도모임에 참석, 새벽기도의 열기를 뽐내었다.

방주교회(박동서 목사)는 2010년을 맞아 금식기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신년 금식기도 성회를 내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다. 콩코드침례교회(김영환 목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신년 4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한다.

트라이밸리장로교회(이명섭 목사)는 내

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한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김영환 목사)는 전교인 특별새벽예배를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연다.

콘트라코스타한인장로교회(전성호 목사)는 송구영신 특별 새벽예배를 12월 29일부터 1월 1일을 제외하고 1월 2일까지 연다. 실리콘밸리한인장로교회(이광희 목사)는 새해특별새벽기도회를 내년 1월 4일부터 16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연다.



2009년 초 산호세한인장로교회(박석현 목사) 40일 특별새벽기도회 모습.

(임형진 기자)

## 주류 사회도 주목한 따뜻한 성탄 선물

### 등지선교회, 성탄절 맞은 노숙자들에게 잠자리 제공

"47세 동안 살면서 평생에 이런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등지선교회(회장 육민권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숙자들에게 편안함 잠자리를 마련해주었다.

모두가 성탄 이브를 기뻐하던 지난 24일, 등지선교회는 가장 외로울 수 있는 노숙자 22명을 찾아 린우드에 있는 로데오 인과 인터내셔널 인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다.

노숙자들은 숙곳과 양말, 육포와 견과류 등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받고

연신 '땡큐'라고 말하며 각자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등지선교회는 크리스마스 기간 내에 호텔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제공했다.

김진숙 목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할만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추위에 떨며 외로움을 느낄 노숙자들을 호텔로 초대하게 됐다"며 "비록 이를 동안의 편안함이지만 그들에게 힘이 되고 힘을 얻어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값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등지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개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김 목사는 "추위와 싸우며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재정이 많지 않아 22명 밖에 초대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아쉬움 토로했다.

등지선교회의 이번 성탄선물은 한인 방송인 코엠 TV를 비롯해 미 주류 방송인 King5에서 집중 취재하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인터내셔널 인에서 노숙자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있는 김진숙 목사

## 월드럴웨이 2010년 신년 축복성회

###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힘과 소망 얻을 것으로 기대

월드럴웨이 교회 연합회 및 목사회(회장 원호 목사, 이하 월드럴웨이 교회는 새해를 맞아 월드럴웨이 모든 교회가 모이는 2010년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한다.

신년 축복성회는 오는 8일(금)부터 10일(주일)까지 월드럴웨이 갈보리교회(담임 김홍문 목사)에서 열리며, 8일과 9일은 저녁 7시, 10일은 저녁 6시에 시작된다. 특별히 9일 오전 6시에는 새벽 기도회로 모

인다. 신년 축복성회의 강사로는 구자경 목사(월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조봉환 목사(월드럴웨이 중앙장로교회), 원호 목사(새 교회), 이석주 목사(금관교회)가 나선다. 보통 연합 부흥성회 강사로 타지역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반해, 같은 지역 목회자들로 강사진을 세운 것은 부흥을 향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교회 연합의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럴웨이 교협

은 지난 성탄절 연합 찬양제가 은혜 가운데 성령하에 마쳐진 것과 같이, 연합 성회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힘과 소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복성회는 말씀 사경회뿐 아니라 합심기도와 개인기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원 호 목사는 "이번 성회는 말씀과 기도로 새해의 문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며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지역의 성시화와 세계 열방을 향한 소망을 연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206-551-2375

## 유병국 선교사, "기도 제쳐놓은 선교는 헛일"

### 북가주연합기도회에서 선교위한 기도 권면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본부장)

WEC 국제선교동원본부장 유병국 선교사는 1월 4일 북가주연합기도회 설교를 통해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소개하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교 내용을 소개한다.

오늘날은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여 선교가 어려운 시대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미개척선교지는 더이상 선교사를 환영하는 곳도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막으려고 고만 한다.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옹호하고 있다.

아랍 지역은 그동안 수많은 선교단체, 선교전문가도 어떠한 해법을 찾지 못한, 선교에 대한 답이 없는 지역이다. 선교사는 발각되면 수감하고 개종자는 사형된다. 직접적인 전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WEC의 경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중동의 한 나라에 병원을 세워서 35년간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는 한국출신 의사도 7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봉사를 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선교사 중 9명이 작년에 무슬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그중 6구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비참하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

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세계의 중요한 3곳에서 아랍어 위성방송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아랍어로 된 복음을 하루종일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선교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TV를 통해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상하게 중동 지역으로부터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본부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위성 TV를 통해 복음을 접한 이들이다. 통제가 잡히지 않았으나 수많은 이들이 위성 TV를 통해 복음을 들을 것으로 생각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도 무슬림 복음전도에 크게 사용됐다. 이 영화는 전도용 영화가 아니라 상업용 영화다. 영화가 만들어져 사회화가 이뤄지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유대인들이 미국 전역에서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유대인들을 극도로 증오하는 무슬림들은 전 중동 국가에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무슬림들이 성장하면서 배우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첫번째는 예수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이며, 두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훌륭한 부기 축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구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물품으로 TV

다는 것이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전파되었다. 더구나 이 영화 대사는 아랍어로 구성되었다. 이제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물어볼 적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할지기가 죽은 상황에서 주님은 이런 영화를 가지고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요즘 오래된 국제 선교단체들이 본부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로 옮기고 있다. 아시아 중 동쪽 눈에 띄는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시아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한국이다. 가장 서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다. 이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로서 중요한 요충지다.

1978년 소련이 이 나라를 침공했고 이에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훈련했다. 전쟁은 10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후 소련이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나라의 질서를 잡아갈 지도자가 없었고 이에 부족간 내란이 벌어졌다. 마침내 1996년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다. 탈레반은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빈 라덴 등 중동 내 극단파 이슬람들이 모두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으며 국제이슬람 무장단체 분기지휘할을 하게 된 알 카에다 훈련도 여기서 이뤄졌다.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먼저 서구 '퇴폐'문화를 퇴출시키기 위해 TV의 오락 프로그램, 극장, 체육시설을 없앴다. 또 직장,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으로는 서구단체 중 기독교 단체들을 세출하기 시작했다. 2001년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던 8명의 선교사를 체포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8명을 살리기 위해 전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수십만에 이르는 탄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더 강경해졌다. 국가 내 모든 기독교 사역자들의 정보를 이미 파악했다.

(김영민 기자)

# 미드웨이 렌트카

최저의 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 MIDWAY CAR RENTAL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완비(고급승용차, 스포츠카,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후버)

한국인 담당  
조수아 김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어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안타깝게도 2009년 10월에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벌어진 에어쇼에서 미그 23기가 저공비행 중에 전깃줄에 걸려 추락하였습니다. 이 전투기는 전기

줄에 걸리며 폭발을 일으켰고, 가정집으로 떨어져 조종사 두 사람이 죽고 민간인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비행기술 중의 하나는 전복비행입니다. 비행기의 아래 위가 뒤집혀 전체로 고속으로 비행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생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역전되거나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위가 바뀌어 전복(顛覆)된 인생으로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고속도의 전복비행이라고 하여

“해피 할러데이” 유감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 전복비행을 하다가 급상승을 하려는 것이 종중 땅이나 물에 비행기를 곤두박질시키는 실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뒤집혀진 상태에서 조종사가 상하를 구분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 순간에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 전복비행의 실례는 우리 삶에서 그리 드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속화 시대를 살아가고

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버드와 예일 같은 고등전문교육기관이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하여 가르치리라 생각하는 것은 순전한 착각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버드 총장을 지낸 데렉 보크(Derek Bok)는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도덕성 개발”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더욱이 대학당국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심

각한 책임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학생이 ‘인종차별이 도덕적으로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그 이유만으로 교수의 도덕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점수를 깎는 것은 교사를 법정에서 지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나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한다는 축하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Happy Holidays”라는 말로 축하합니다.

미국의 공공의 생활에서 점차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휴일”이라 하는 것은 불신자를 향한 배려는 될지 모르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복비행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영적 후퇴가 되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한천영 칼럼



한천영 목사  
갈릴리안선교교회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아직도 멜 깁슨이 그의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유’를 달라고 외치던 모습과, <쇼쇼크 탈출>에서 억울하게 죄수가 된 팀 버튼이 마침내 탈옥에 성공한 후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자유’를 탄복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유는 그렇게 좋은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를 찾은 인간은 또 어떤 자유를 추구해야 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전통과 규범, 객관화된 진

혹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유가 절대적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자유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는 어떤 종류의 악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존 스토트 인용). 기독교의 자유는 이렇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물속에서 살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물속으로 제한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할 권리를 달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죽음을 말합니다.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차는 기차 레일위에서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지하신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계마저도 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간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외치며, 자유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리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판단이 진리가 됩니다. 종교, 권위, 전통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인간의 취향이나 개성을 방해할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극단적인 죄의 형태로 간주되던 마약, 도박, 섹스(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해지지 않고 오히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고. 그렇다. 지난 일 년 동안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도 깊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빨리 늙는다. 바울은 더욱 좋은 말을 했다. 자신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 가지만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그 분이 나이가 해마다 더 추가되는 것을 속 사람이 성숙해 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멋진 삶인가. 새해에도 속 사람이 날마다 성숙해 지는 한해가 되기를 빌며,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육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요일 2:16).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분이 거부할 수도 있는 십자가 형을 그분의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자신의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 8:35).’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9.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특정 지급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한해서도 선별적으로 가입이 가능 함. 10. 메디컬보험과 관련된 치료보험, 안경보험(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그룹생명보험도 상기에 열거한 사항과 같이 제공하거나 일부만 제공, 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끝으로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Blue Cross, Blue Shield, PacifiCare, Health Net, Kaiser, Cigna,

Aetna, United HealthCare 등 Preferred 보험회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HMO, PPO, POS 플랜에 따라 보험료와 베네핏이 차이가 있고 가입하려는 회사의 여건, 즉 타주에 거주하는 종업원, 종업원 각자의 원하는 플랜, 회사 설립시기, 종업원에 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의 분포, 그만두거나 장기휴가 직원의 보험제공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보험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13-387-5000

현순호 칼럼

내 나이는?

새해에 들어 왔으니 한 살이 추가된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세어보게 된다. 이것이 보통 자기나이를 세는 한국의 전통적인 방법이다. 양력이 아닌 음력을 기준 하는 연세 들으신 분들에게는 새해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다. 음력으로는 2009년 11월 중순이기에 아직 한살이 젊은 것이다. 그런 모순을 볼 때 미국사람들이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추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다. 지금 연세가 60세 이상된 많은 분들은 음력으로 된 생일을 양력으로 바꾸어 버리는 수가 많다. 안 그러면 양력을 쓰는 세상에서 해마다 생일 날짜가 바뀌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준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즉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다음날 1월 1일에 두 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12월 생 자녀를 일 년 후에 호적에 올리는 이도 있다. 한국은 지금도 신생아 출생신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해서 법적인 나이가 효력을 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주는 출생증명서

가 정확한 자신의 생년월일이다. 한국에서 60-70 년 전에는 출생신고를 몇 년 후에 했다. 왜냐하면 흥역을 비롯 많은 질병과 약의 부족으로 죽는 애가 많았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긴 후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원 나이보다는 젊게 기록 되었다. 호적도 6. 25사변 때 분실되거나 불에 타 없어져서 다시 만들면서 생년월일의 착오가 나기도 했고 더욱이 이북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호적에 올릴 때에 젊은 사람들은 전쟁으로 늦어진 학교의 입학 을 위해, 또는 군에 입대하기 위해 아 니런 군인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년 월일을 원 나이와 다르게 기록한 일들이 많아서 ‘고무줄나이’라는 말이 생겼다. 한인들은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묻는다. 좋은 뜻으로 형님이 되면 윗 사람으로 모시고 동생 별이 되면 사랑을 베풀고 싶은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학교의 선배들도 비슷하다. 일 년 선배를 깎듯이 대접하고 후배에게는 때때로 차나 밥이라도 사 주는 선배들의 훈훈한 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풍토는 직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풍토는 한국의 오래된 상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평면(평등)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나이에

관해서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차별이 별로 없다. 즉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나이에 크게 상관 하지 않고 결혼을 하거나 친구가 된다. 학교의 선배나 직장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찾아 서로 친분관계를 맺고 산다. 이런 풍토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천만 다행이다. 만일 한국처럼 구별과 차별이 심하면 새 땅에 새로 뿌리 내리는 외국인에게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 나이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 원래 내 나이, 호적의 나이가 있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가 있다. 즉 가능한 젊게 사는 사람의 나이와 반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혹은 비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나이는 너무도 차이가 있다.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내 나이가 있다. 그 면이 더 중요하다. 원 나이보다 젊게 봐 주고 생각과 행동이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봐 주는 일은 너무도 감사 할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나이 보다 더 늙게 보고 고집불통이고, 잔소리 많고, 인색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봐 주면 슬픈 일이다. 마치 늙은 암탉처럼 날아야 할 알은 제대로 낳지 못하고 먹기는 많이 먹으면서 젊은 닭들을 따라다니 며 자꾸 쪼아 대고 문제만 일으키는 추한 늙은이로 비치면 흔히 하는 말로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다. 연초가

되면 한 지혜자의 말이 떠 오른다. 내 나이를 뉘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신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지역  
한인교회 총무

에게 기도하는 구절이다. 즉 자기 나이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몸부림이다. 또 한 사람 바울은 새해에 해당되는 좋은 말을 남겼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고. 그렇다. 지난 일 년 동안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도 깊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빨리 늙는다. 바울은 더욱 좋은 말을 했다. 자신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 가지만 안에 있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그 분이 나이가 해마다 더 추가되는 것을 속 사람이 성숙해 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멋진 삶인가. 새해에도 속 사람이 날마다 성숙해 지는 한해가 되기를 빌며,

보험 칼럼



진철희 사장  
켈코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건강보험과 그룹건강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룹건강보험은 무엇인가 검토해 본다. 그룹 건강 보험은 크게 구분하여 대그룹 과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입대상 종업원 수와 플랜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2명부터 50명까지의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을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몰 그룹 건강보험에 대하여 그 혜택 및 가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첫째, 그룹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면. 1. 지급되는 보험료는 100% 세액에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함. 2. 지급되는 보험료는 종업원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종업원 상해보험료 산출의 대상이 되지 않음. 3. 보험료와 혜택 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나은 조건의 혜택이 제공됨. 4.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만 가입절차를 밟으면 종업원 또는 그 가족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임신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가입이 거절되지 않음(개인보험

은 서류를 심사하여 병력이 있거나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을 둠) 5.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베네핏(Benefits)에 의해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자긍심과 소중함을 갖게 된다. 6.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심사에 따라 10%를 디스카운트 해주거나 10%를 더 부과할 수 있음. 둘째로 가입 시 주의사항을 보면 7. 급여를 지급하는 종업원에게는 같은 조건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종업원의 75% 이상이 가입해야만 소그룹으로 간주함. 8. 종업원

www.kbjsign.com www.kimbonjunsign.com www.bonjunsign.com KIM BON JUN SIGN INC.
KB SIGN Inc. 김봉준간판에서 확실한힘을 실어드립니다!
아담스와 노만디 본사 건물에 이어, 버몬트와 8가에 또하나의 건물을 구입하여, 간판출세일 할인매장(버몬트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을 더욱 더 편안하게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버몬트와8가에 간판출세일 할인매장 오픈
물정기 극복을 위한
Full Color Banner 현수막 대세일 \$45.00 3' x 10'
디자인 포함 Full Color Banner
특별 깃발 FLAG SALE
조립식 야외용 천막
NEON SIGN
ONE STOP SERVICE
SALE \$9 LED 전광판
15" x 41" (Color) \$550 15" x 53" (Color) \$650
15" x 67" (Color) \$750 15" x 78" (Color) \$850
19" x 102" (3Color) \$1600 28" x 20" (1인칭도화) \$1600
MADE IN KOREA
지정 급시용 LED
모든것을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SIGN / BANNER / PRINT / COPY
AA 재벌 급시 출세일
A 품 급시 출세일
부품: 1인치 부채: 2인치
박스간판 출세일
식당창업의 모든것
간판, 실내내류라이트박스
컬러메뉴, TO GO메뉴
젓가락, 냇킨, 손가방집
창문스티커, 천막, 내은사인
간판재료판매
형광등, 발라스타, 아크릴
트랜스포머, 스티커, 디보
간판재료의 모든것
각종 판촉물
사무용품, 볼펜, 달력
머그컵, 타올 등등
디자인 / 컬러인쇄
명함, 플라이어, 메뉴
엽서, 포스터, 브로셔
사건촬영(인물, 음식)
심플, 로고 디자인
김봉준간판
Mon-Sat
08:00 AM - 06:00 PM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아담스 본사 (Adams + Normandle)
1800 W. Adams Blvd.,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3-1177 Fax: 323-733-5858
김봉준간판
Mon-Sat
08:00 AM - 08:00 PM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버몬트 지점 (Vermont + 8th St.)
82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5-1258 Fax: 213-385-1030

### 기고



전 호 진 박사  
컴보디아장로교신학교 총장

우리는 이슬람의 선교전략을 가지고 이슬람의 선교를 막을 권리가 없다. 이

슬람이 우리 사회의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우리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종교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슬람의 활발하고도 공격적인 선교보다도 무슬림들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많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무슬림들과 결혼한 많은 여성들의 인권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이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경계한다. 무슬림 계도가 안산을 위시한 많은 도시에 이미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언론은 기독교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는 신속하면

서 이슬람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데는 주저하는 것 같다. 우리는 구라파나 호주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무슬림들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모스크의 첨탑 건립이 주민 투표로 금

지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구라파 국가들이 이슬람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라파 각 나라들이 무슬림에 대해 갈수록 혐오감 내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학생들의 차도르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이유 등으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무슬림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2005

년 덴마크에서 한 만화가가 마호메트를 풍자하는 만화를 신문에 실었다. 그로 인해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데모가 일어나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 불에 타는 사건도 발생했다. 독일에서도 많은 모스크로 인하여 독일 국

민들 사이에 반이슬람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이슬람 테러로,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한 무슬림들의 지나친 반발에 백인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지난 달 하산이라는 미국 무슬림 소령이 부대에서 동료 군인들을 무차별 난사한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산은 무슬림 미군 장교로 이라크에 파병 명령을 받

자 같은 무슬림으로 어떻게 이라크에 가서 다른 무슬림과 싸울 수 있는가 무차별 난사하고 말았다. 이슬람은 옴마(전 세계적 이슬람 공동체)라는 교리로 인하여 어느 종교의 신자들보다 전 세계 무슬림들과 강한 동지적식을 가진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슬람 파위,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슬람 공포증과 테러는 현대 세계가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호주나 동남아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호주의 예를 들면 무슬림이 증가하면서 무슬림들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져가고 있다. 한 이슬람 지도자는 '세계의 모든 땅은 알라의 땅이며 호주 땅도 역시 알라의 땅'이라고 말

한다. 심지어 한 무슬림 지도자는 차도르를 하지 않은 여자들은 포장되지 않는 고기와 같이서 남자들이 강간하여도 그 책임은 차도르를 하지 않은 여자에게 있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다. 10년 전만 하여도 호주에서는 차도르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많은 동남아시아도 증가하는 무슬림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무슬림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이슬람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도리어 캄보디아를 이슬람화하려고 한다. 태국 남부에서는 작년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었다. 필리핀 민다나오의 무슬림 공동체는 '무서운 동네'로 소문났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테러를 당하기 때문이다.

## 이슬람과의 문화충돌의 실례

### 자생 칼럼



윤 제 필 대표원장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본원

우리 직장인들은 자신의 척추 건강을 위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지키고 있을까?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 직장인 김 대리. 언제부터인가 눈도 침침하고 두통도 심해진 것 같다. 컴퓨터의 마우스를 쥐 온 손이

준다고 생각했다. 이는 언론이나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 척추 건강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이는 척추 환자가 매년 증가한다는 우려 속에서도 척추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무직 직장인들은 또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척추 건강에 가장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5.5%)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67.2%) 및 주기적인 스트레칭(45.4%)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꼽아 생활 속 습관이 척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요즘 건강열풍을 타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12.7%의 직장인들만이 선택해서 척추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31.9%가 건강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

지는 셈. 학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반듯하게 서있는 자세를 100으로 봤을 때, 똑바로 누워있을 때는 25, 의자에 반듯이 앉아있는 자세는 140,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의자에 앉을 경우는 185로 나타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이 허리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를 할 때 요통 및 허리디스크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바른 의자의 선택이다. 먼저 컴퓨터 앞에 앉을 때 배를 당겨 놓고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가슴 쪽으로 약간 당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목을 숙여서 화면에 코를 박듯이 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바퀴는 없는 것이 좋다. 등받이에 기대어 허리를 곧게 펴면 허리에 부담이 덜 가게 된다. 반면 바퀴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면서 뺨이 허리가 뒤로 나오게 굽혀 버리게 되어 피하는 것이 좋다.

## 직장인 "시간 없어 척추 돌볼 시간 없다!"

뻣뻣해지면서 어깨 근육은 늘 뭉쳐있다. 김 대리는 자신의 척추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오랫동안 앉아있기"라고 생각하고,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잊어버려서 못한다고 말했다. 김 대리와 같은 직장인들은 척추 건강정보를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해 "척추건강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사무직 종사자들은 "근무 중 자주 취하는 자세"로 등과 어깨를 구부정하게 앉는다(42.4%), 다리를 꼬는다(22.7%), 목을 앞으로 쭉 내민다(19.7%) 등의 자세를 평소 많이 취하고 있어 척추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생한방병원이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2백30명(남성 104, 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척추관리에 대한 사무직 직장인의 인식 및 관리 양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 - 설문내용 분석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95.6%)이 올바른 생활습관이 척추 건강에 도움을

또 의자의 엉덩이가 닿는 면은 지나치게 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푹신하면 목이 가라앉아 허리가 굽는 자세가 되기 때문이다.

[ 직장인을 위한 척추 건강 스트레칭 ]  
1. 허리 틀기  
의자에 허리를 붙인 채 펴고 앉는다. 이 때 양 손은 의자 뒷부분을 잡고 허리를 고정한 채 상체를 뒤로 젖힌다. 이 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가슴을 편다. 10초간 고정.  
효과 : 외복사근, 내복사근의 근력을 길러주고, 척추의 회전력을 좋게 한다.  
2. 기립근 늘리기  
등을 의자 등받이에 붙인 후 바로 앉는다. 양손을 깎지 끼 머리 위로 기지개를 펴며 목과 상체를 뒤로 젖힌다. 이 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가슴을 편다. 10초간 고정.  
문의) 자생한방병원 (714)773-7000 / www.jasengusa.com

### 안젤라 김의 교육칼럼

## 미국 중/고등학교 유학



안젤라 김

"한국에서 중 3인 조카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서 유학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립학교, 통학 사립학교, 보딩 스쿨입니다.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이 미국 시민권이 있고 부모 중 한 분이 미국에 와서 학생을 뒷바라지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시민권이 없다면 정식으로 외국을 통해 유학 절차를 밟아서 와서 가디언 집에 거거하면서 통학하되 9학년부터 일 년 동안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소정의 학비(만 천불 정도)를 내야합니다. 그 외의 방법은 다 불법입니다.

필자가 진학 상담을 하다보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진지한 대안으로 유학을 해 오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조카가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고 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한국에서 수는 성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아예 미국으로 유학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등등 한국에서 고등 학교 혹은 대학, 대학원, 언어 연수 등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 오려는 진지가 있는데 미국에 살면 그런 일들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기대하며 전화를 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에게 전화해서 상담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기에 앞으로 몇 주간은 미국(혹은 캐나다 등) 미국 밖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입학 허가서를 내줄 수 있도록 인가된 사립 통학학교(동네에 있는 사립학교가 모두 유학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에 지원해서 입학허가서(I-20)를 받은 후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는 방법으로서 통학 거리에 있는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야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부모처럼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집 주인을 만나기가 참 어려울 뿐 아니라 학교에서 오는 모든 문서를 읽고 해결해 줄 영어 실력이 되는 가디언을 찾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게다가 통학 사립 학교는 방과후 활동이 다양하지 않은데다가 흡수 방과후 활동을 하려고 하면 홈스테이 주인이 따로 라이드를 해야하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사정을 모르지만 이곳 이민자들이 밤낮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니까?). 결국 학생은 학교만 왔다갔다 하며 미국의 문화는 접하지도 못한채 집에서 한국 비디오를 보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학비 자체는 만 불부터 삼만 불까지 학교에 따라 다르고 홈스테이 비용도 한 달에 1000불부터 2500불까지 다양합니다. 사립 통학 학교(Day School이라고 부름)에 다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미국인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방법입니다. 집 주인을 잘만 만나면 미국 문화와 가정을 직접 경험할 뿐 아니라 영어 말하기와 듣기를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 등을 소개시켜주고 홈스테이를 추천해주는 학교도 아주 간혹 있지만 학교에서 그것까지 신경써 주지는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 방법은 학생이 성격이 활발하고, 꼭 한국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나이 어린 학생이 부모 없는 외딴 곳에 와서, 게다가 의사 소통도 잘 되지 않는 미국인 가정에서 지낸다는 것은 학생의 성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숙사가 캠퍼스에 있는 보딩스쿨입니다. 주말에 가까운 곳에 나가는 주말 여행과 휴일 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방과 후 활동, 클럽, 취미 활동의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보딩 스쿨에 대해서는 다음 번 칼럼에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엔젤라 유학/교육 상담 그룹, www.angelaconsulting.com

주 7Day Open (8am-6pm)

# 나라 오토 리페어 & 바디

창립 25주년 기념 25% 연말까지 특별 세일

〈타이어 2개 이상 교체시〉  
**오일 체인지 무료**

〈오일 체인지할 때〉  
**기본 점검 무료 제공**  
(\$18<sup>99</sup>+ Tax 4Q ↑ Up)

✓ 완벽한 종합정비 시스템    ✓ 모든 차량 원스탑 서비스

〈바디부〉 - 교통사고 모든 보험 취급 - 사고 보고  
- Towing - Repair - 무료견적

〈정비부〉 - Towing Service - Smoge Check - Brake Service  
- Tune-Up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웨스턴과 12가가 만나는 길목 **나라 오토 리페어 & 바디**  
**(323)734-4881, (323)734-4882, Fax (323)734-4883**  
 Towing Service (213)494-2005, (213)761-7994 / 1201 S. Western Ave., L.A., CA 90006

#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대의 인물 길러야”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고석희 목사.

GKYM 대회에 청년들과 함께 참석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고석희 목사(KWMC 사무총장)가 28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교적 인물론'을 주제로 강연한 고 목사는 “이 시대 역사를 책임

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설명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물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인물이 아니면 온 인류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을 살았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인도사 람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추모하게 만들었던 마더 테레사의 그 힘은 어디서 나

님의 인간관에 차이가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관은 한없이 찬란하다. 참새가 아닌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다. 홀로, 또는 단 둘만이 다니는 독수리를 예로 들며 “고독이 사람을 인물이 되게 한다. 고독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인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미터나 되는 독수리는 스스로 날지 않는다. 한 쪽이 90Cm나 되는 긴 날개를 짝 펼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며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날개”라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태양을 볼 수 있는 독수리의 시력은 곧 목회자들의 영적 시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빵 부스러기만 바라

보고 높이 날지 못하는 갈매기에 비해 암벽 꼭대기에서 창공을 비행하면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데 천재적인 독수리를 말하며 “목사는 목사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 또한 사역의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형 집회가 있는 가운데서도 장엄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속에 허무가 있다.”고 일침을 놓으며, “주의 역사를 책임질만한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물을 배출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 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GKYM 대회서 인물론 강의

질 한 사람, 인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중 전도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이 끝없는 집념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목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물을 통해 역사를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인물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볼 만한 사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민족이 바라볼만한 인물이 고갈됐다는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풀고 나가야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을만큼 비극의

온 것인가. 무슨 힘이 마더 테레사에게 작용했기에 인도의 역사를 흔들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한국의 7천만을 흔들만한 힘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며 “목사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집중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고 목사는 “사람의 인간관과 하나



## 골프선수 최경주, 양용은 찢러봤지만 완전히 ‘돌’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

“9년간 지내오는 동안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나 여러분이나 2009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0에서 시작할 때 0+1이 돼도 기쁜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음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PGA 최경주 프로가 밝힌 새해 다짐이다. 최경주 프로는 29일 GKYM 선교대회에서 미국에 와서 겪은 어

려움과 그동안의 신앙여정을 간증했다. “선교대회에 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어찌까지 새벽기도로 준비했다.”는 최 프로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유머 넘치는 언변으로 청중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고달프고 운동이 힘들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일하니까 지치지 않는다.”며 “다음 해 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전했다.

최경주 선수는 간증 후 10승을 기

원하는 참석자들의 안수 기도를 받았다. 최경주 선수는 우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축복 기도 해주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강단위로 올라오라”는 김태택 목사의 말에 2백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올라가 최 선수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다음은 소그룹 선포 강연에서 최 프로가 참석자들과 나눈 문답이다.

양용은 선수를 전도할 생각이 있는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 없나 한 번 찢러 봤는데 돌이다. 갑자기 조금

라도 들어갈텐데 아직은 아니다. 기도 중에 있다. 같이 있으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어느 순간 양 선수의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 확실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타이거 우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못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 몇 년 전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그 친구가 골프계를 이 정도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신앙이 뜨겁게 된 계기가 있나?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 교회를 가지 않으면 데이트를 안해준다고 해서 따라간 사람이다. 종교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고, ‘그냥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신앙이 생겼다.

했다고 간증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달라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 방법도 몰랐지만 기도를 했었다. 데뷔하고 나서 가수가 된 후에도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 했던 그런 기도를 생각나게 해 주셔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 같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원더걸스’로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 정말 진짜 데뷔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처음으로 데뷔한 것 같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면.

찬양하고 공식적으로 간증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자리였다. 가수 데뷔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고 기도



## 생애 첫 간증, ‘원더걸스’ 데뷔보다 더 떨렸어요 간증한 원더걸스 리더 민선예 씨

‘텔미’로 대한민국을 휩쓸며 ‘걸 그룹’ 열풍을 일으킨 원더걸스. 본국서 정상 자리에 섰을 때 미국으로 건너와 밀박부터 다시 시작한 이들은 얼마 전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빌보드차트 100위 안에 들어 화제가 됐다. 원더걸스의 리더 민선예 씨는 GKYM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신앙여정을 간증했다. 다음은 민선예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릴 적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가자고 하시며 교회에 데리고 가신 것이 계기가 됐다. 할머니께서는 부모 없이 잘못 키웠다는 소리 안 듣게 하고 선한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교회에 데리고 갔다고 하시더라.

멤버들이 다 크리스천인지.

소희 씨는 아직 무교다.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아직은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늘 같이 하고 있다. 공연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다함께 기도하고 올라간다. 박진영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원더걸스 멤버

들이 노력했다. 이번 투어가 끝나고 성경공부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멤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미국생활은 어떤가.

감사하다. 투어를 하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적 같은 하루 하루를 보냈다. 투어 중에 멤버들도 스태프도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와중에도 계속 ‘이게 정말 하나님 부르신 것 맞죠?’라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다.

어릴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고 기도

## CCC 부총재 폴 에쉬먼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은 20대”

### ‘예수’ 영화 창시자, 미전도종족 선교에 도전



CCC 부총재 폴 에쉬먼 목사.

“복음을 듣지 못한 Unreached People의 51%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들 중 70%가 27세 이하다. 그러나 현재 선교단체 평균선교사 연령은 47세,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20대, 대학생이다.”

CCC 부총재이자 ‘예수’영화의 창시자 폴 에쉬먼 목사가 29일 청년들의 미전도종족 선교에 강한 도전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세계를 변화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20대였다. 이란 정부를 움직이는 것도 대학생들이다. 모든 세대를 바꿔왔고, 현재도 바꾸고 있는 주축은 20대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태어나 한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종족에게 다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자.”

에셀맨 목사는 “무슬림 국가인 이란

에서 60년 간 선교한 85세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 그 분은 60년 동안 딱 1사람을 전도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전도된) 그를 위해서라도 긴 60년의 선교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할 적이 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 지 60년의 인생보다 가치롭고 크다고 전하며 듣는 청년들에게 선교 열정을 불어넣었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51%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워싱턴, LA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70%가 27세 이하다. 대학생인 여러분들의 복음전파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폴 에셀맨 목사는 “60년의 인생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기꺼이 바치시길 바란다”고 도전했다.

에셀맨 목사는 “무슬림 국가인 이란

(권나라 기자)

#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회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228-9540 / FAX: 714-521-4636  
thankslivingchurch.com

**소중환사람들(구,거리선교회)**  
대표: 김수철 목사

매일 오전 7시 (다운타운 4가 Crocker St.) 찬양과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 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 9시 30분 센터예배  
한인홀리스차일드센터 운영, 후드뱅크 운영, 한국노숙자  
무료급식 및 노숙자전용교회, 센터운영, 미인마 무료급식 및  
고아원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a@yahoo.com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국용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시 20분  
수요예배 & 성경공부: 오후 6시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국제오미미주한인선교회**  
대표: 김경현 목사

OMKAM

1605 Elizabeth St, Pasadena, CA 91104  
Tel: 626-398-2294 / Fax: 626-398-2295  
omkamusa.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금요예배: 저녁 7:30 / 저녁 7:30

1750 N. Edg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lafgusa@yahoo.com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8: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0시 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 12시 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 2시 30분  
FAMILY CHAPEL E.M. SUNDAY: 12:00 PM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1234      www.omic.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 / 새벽예배: 오후 1:00 / (월-토) 주일 오전 5:30  
수요예배: 저녁 7:30

111 S. Mariposa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3-9182 / FAX: 213-251-9182  
lams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석현 목사

한어 KM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영어 EM예배: 1부 오전 11시 / 2부 오후 1:30  
영어 EM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05:30

19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8  
Tel: 626-793-0880/0220 Fax: 626-793-6412  
dreamumc.com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예배: 7시 2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30분      뮤직 아카데미  
주일 4부(청년): 오후 1시 30분      오후 1시 30분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el: 213-365-6191 / FAX 213-365-6291  
lakmc.onmam.com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셀모일: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el: 714-900-1008 comingj@gmail.com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늘푸른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9:40      아름다운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오직주님예배  
주일 4부예배: 오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el: 714-524-2029 Fax: 714-524-8844  
www.sstpc.net

**새창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주일예배 1부/2부      오전 9시 / 11시  
찬양경배      오후 1:30  
새벽기도      새벽 5:30  
수요예배      오후 7: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325-0501 / FAX 310-325-4282

**세계선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한어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 213-388-1927 / 213-388-2105 F) 213-383-3818  
www.worldmissi onchurch.com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 (EM):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시(토)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810-3455 / Fax: 626-964-5559  
beautifulchurch.org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어예배) 9시45분  
3부(전통예배) 11시30분 / 4부(찬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일은이 예배 6시  
새벽기도회: 6시 수요예배: 7시30분 금요기도회: 8시

61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2-5658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714-236-0256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2시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714.446.6200 Fax: 1.714.446.6207  
graceml.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예배 3부      오후 12:40  
수요/금요예배(LA)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www.gcjc.org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 30분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323) 732-7356 목사관: (818)993-3574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comecornerstone.com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주일 1부 오전 9:30(영어) / 2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Cell Church (금) 오후 8시  
청소년 예배 (토) 오후 7:30  
Leadership Training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el: 909-598-7731 Fax: 909-594-5955  
Walnutblessing.com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4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  
찬양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el: 909-464-9210 / FAX 909-548-4536  
hanarochurch.net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용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45 (새 세대 예배)  
교육부 예배: 오전 11시 4층  
AWANA 주일 오후 1시 4층 체육관  
수요 워십 콘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5-8677 / 323-735-8888 FAX 323-735-960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영어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찬양예배 오후 3: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시 30분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주일 1부 EM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el: 949-458-9191 Fax: 949-459-9158 / www.newlifekpc.org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EM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3-2939 NEWLIFEASIS.ORG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 기도회: 오전 9:5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토요일(Youth) 중고등부 모임: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 550-7377

**Coffee Break Small Groups**  
한인사역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주소 8208 Pe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el 714-995-4461 Fax 714-974-3017

**심 있는 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293-1257 / Shim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 1부 오전 8:30 분당, 2부 영어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분당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45분  
주일 4부예배: 영어예배: 오후 1시 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 5시 30분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파사데나 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주일예배      새벽기도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월-금 오전 5:30분  
스페인예배: 주일 오전 10시      토 오전 6시  
한국어예배: (1)부주일 오전 9시      수요예배 오후 7시 45분  
(2)부주일 점오 12시

585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1  
Tel 626-795-6252 Fax 626-584-6544      www.weppc.net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6시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주일 예배 2부: 오전 9:30 (월일예배)  
주일 예배 3부: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el: 818-549-9191 / www.choonghyun.org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323-735-6412, www.gmcchurch.com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청년):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680-9556 Fax: 714-680-6418      dongshinchurch.com

**한인어린이회**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법인 주연방정부 IRS

회장: 테라사업 목사

문의: 213-380-1112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주일 예배: 오전 9:30 / 오전 11시  
주일 학교: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고등부: 오전 11시 / 오후 1시  
금요중보기도: 오후 1시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el: 213-739-0515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매일): 새벽 5:30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Fax: 213-380-937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교회분당

3451 Torrance Blvd, #201, Torrance, CA 90503  
Tel: 424-903-4020, Fax: 424-903-4018 / www.tozang.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오 후 예 배: 오후 2시  
영 어 예 배: 오후 2시  
새벽 예 배: 오전 5:30 / 금요찬양: 오후 8시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 www.laapc.org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Joyland): 오전 11시  
중고등부(Dream Team): 오후 1:15  
청년부(Feet Team):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944-8082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후 11: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622-2324 Fax: 909-622-1460      www.inlandchurch.org

**남가주리더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본당)  
주일 2부예배: 오후 1시 (본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주일학교/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본당)

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육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rdm.com

**중앙아시아선교회**  
대표: 정기철 집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lin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el: 626-533-5300 Fax: 626-912-7453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주일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찬양: 오후 1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213) 745-9191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적

- 프라이밍 생등심
- 프라이밍 갈비살
- 샤브 샤브
- 프라이밍 꽃살
- 초이스 팜갈비
-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 오리고기
- 흑염소
-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김기철 대표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월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중 장거리 및 귀국이사  
해외이사 문의 환영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 에이스 자동차

앞유리 용접 수리

둘에 맞아 깨진 부위  
금시간 부위를 교환하지 않고 수리  
용접수리는 글이 더 이상 진행 또는 재발하지 않으며  
용접후의 상태는 90%이상 복원됩니다.  
LIFETIME WARRANTY 새유리 교환가능  
리스차 반납시 문의해주세요

T. 213-503-9596  
(출장서비스 헤드팀이다)

## 오스카 카펫 클리닝

OSCAR CARPET CLEANING 스팀삼품

“고온스팀, 고성능 트럭마운트”  
하우스, 콘도, 아파트, 사무실, 업소  
소파, 카우치, 러그, 자동차시트  
Floor Wax, Tile 크리닝

(24Hrs, Cell) 전지역서비스  
**213. 550. 6061**  
818. 588. 0993  
714. 504. 0067

Window Coverings  
버티칼, 블라인드, 셔터 등  
설치 및 수리

교회 특별 할인 / 모든 청소 무료상담

## K ONE Plumbing

- ✓ Faucet, 디스포설, Water heater, 보일러
- ✓ 싱크, Toilet, 욕조, 각종밸브, 수리, 설치, 교환
- ✓ 리파이핑 무료 견적
- ✓ 새는 곳, 막힌 곳 플러밍 문제 상담 환영

**213.663.6854**

< 교회 플러밍 공사 특별할인 >

##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 A-1 정비

엔진 & 미션 전문

- 트랜스미션
- 브레이크
- 타이밍벨트
- 튜업 정비

10% 할인

오일 교환  
76 오일 사용  
\$12.99 \*tax 6cyl.  
\$ 9.99 \*tax 4cyl.  
\$14.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Joseph INTERIOR

오셉인테리어

- 창문, 도어 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잇
- 페리오, 텍크, 펠스,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몰딩, 페인팅 (하우스, 점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323.788.8689 김에스터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 컴퓨터 출장수리

하드디스크 복구, 백업  
컴퓨터수리, 네트워크

>>>>전화상담 무료<<<<<  
**213-605-2350, 818-621-9002**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전문 (213) 700 6484 (24Hrs)

## 집수리 일체

내집처럼 정실하게 저렴하게  
**(714)749-6406**

자세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라이선스 보유 업체\*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eMoving.com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 Foreign & Domestic Car
- ◆ 새 유리 & 중고 유리
-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 무료 전화 견적
- ◆ Low, Low Prices
-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 Stone Damage 수리

둘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작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은 찾아주세요!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 카펫 클리닝

트럭마운트, 고온 스팀삼품, 의자, 소파,  
타일 등, 바닥왁스 (본인 직접시공, 성실 봉사)

**213-839-0300, 818-419-5548**  
101 CLEANING 서비스

## 뉴베버리 이발관

New Beverly Barber Shop

헤어컷, 염색 전문

(323)462-3112 LA. 한국마켓 옆  
128N. Western Ave. LA. CA 90004

VISA MasterCard 카드환

## 엘에이 떡집

“전통의 맛과 건강까지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백일/돌/생일/회갑/결혼/폐백/각종모임

L.A. RICE BAKERY  
주문전화 **323.463.4944**  
950 N. Western Ave. LA, CA 90029

##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HYUNDAI  
WILIA  
SAMSUNG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 < 200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1월 19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플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국제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EL : 626-448-0023  
3225 N. Tyler Ave. Elmonte, CA 91731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TEL : 213-388-1000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USA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謹賀新年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기기번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P BOX가 없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기정을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지금 가입하시면,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급서비스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환급제도  
간편한 온라인 코퍼레이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800 872 2902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가맹 및 동의전화  
www.Korea.ITalkBB.com

아·이·토·크·비·비  
Joins AMERICA  
iTalkBB  
www.koreadaily.com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콜링 가입자에게는 개별비(0.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웹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2009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2009년 통신부문 히트상품**  
2009년 12월 14일 (목요일) 한국경제  
아이토크비비,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가 히트상품인 이유!]**  
로컬/장거리/국제전화까지 무제한

**첫째**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TAX 포함]  
**\$24.99 /월**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둘째**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 AMAZING 에어컨백화점

경력 33년 냉·난방기 판매 설치전문

## 성능과 수명은 설치

에 달렸습니다

LG  
현대  
삼성  
위니아  
캐리어  
미주전역 총판

### 최첨단 기능과 초절전형 FLOOR STANDING



7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 판매 1위

에어컨/히터 겸용

### 전기온풍기 히터



중.대형(고급형)

중.대형(보급형)

슬림형

전기온풍기 히터

### 벽걸이 (9,000~36,000)BTU 에어컨/히터 겸용

7년 연속에어컨 1위

HYUNDAI 무겁고 안정감있는 세계적 인지도

WINIA 김치냉장고 덩채를 탄생시킨 최고의 공조 전문 업체

SAMSUNG 9K,12K,18K,24K BTU Smart Inverter/Good Sleep Mode ETL / AHRI Certified



9,000~30,000 BTU



9,000~24,000 BTU



9,000~24,000 BTU



9,000~36,000 BTU

### MINI-SPLIT SINGLE ZONE HIGH WALL DUCT-FREE



New Art Cool (9,000~12,000 BTU)

9,000~24,000 BTU

(Picture Art Panel)

### DUAL / TRI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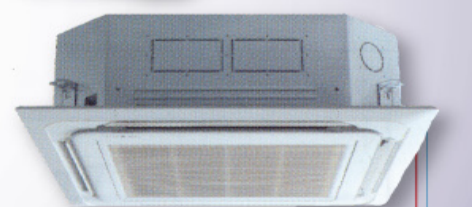
27,000~33,000 BTU



Inverter ENERGY STAR R-410A

Ceiling Cassette (Single Zone)

42,000 BTU



에어컨 세상



323.525.0011

4015 W.Olympic Blvd.,L.A., CA 90019

213.200.5388

www.AmazingAircon.com